



“전쟁 종식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여성들이 말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14:00 ~ 17:40

**참여** 온라인 사전등록 링크 <https://bit.ly/3GkdPTj>

## | 공동주최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 여성평화외교포럼 |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 전국여성연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YWCA연합회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 | 후원 |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 위민크로스디엠지(WCDMZ)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WILPF) | 통일뉴스 | 여성신문



온라인 사전등록

#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여성들이 말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14:00 ~ 17:40

**언어** 한국어 - 영어 동시 통역 제공

**참여** 온라인 사전등록 링크 <https://bit.ly/3GkdPTJ>

## 진행순서

<b>개회식</b> 14:00 ~ 14:15	<b>사회:</b>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b>환영사:</b> 공동주최 단체 <b>축사:</b> 여성가족부 장관,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GPPAC, WCDMZ
-----------------------------	--

##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개최 30년, 성과와 과제

<b>1부</b> 14:15 ~ 15:45	<b>사회:</b>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총괄부장) <b>발제:</b>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b>토론:</b>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문숙 (전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시이 마야코 (전 일본YWCA회장) 패티 텔벗 (캐나다연합교회 국제파트너십 프로그램 팀장)
----------------------------	--

휴식 15:45

## 여성들이 바라본 한반도와 동아시아 갈등과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제안

<b>2부</b> 16:00 ~ 17:40	<b>사회:</b>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b>패널:</b>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아키바야시 코주에 (월프 교도, 도시샤대학 교수) 앤 라이트 (미국 WCDMZ, 평화재향군인회 운영위원) 왕 다닝 (중국 Charhar 연구소 연구위원) <b>전체 토론:</b> 고유경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평화연맹 컨설턴트)
----------------------------	---

## 자료집 목차 Table of Content

<b>1세션/ Session 1</b>	
이현숙 한글 발제문	4
Lee, Hyunsook English Version (Presentation)	17
이나영 한글 토론문	29
Lee Nayoung English Version (Discussion)	34
이문숙 한글 토론문	40
Lee Moonsook English Version (Discussion)	44
이시이 마야코 한글 발제문	49
Ishii Mayako English Version (Discussion)	52
패티 텔벗 한글 토론문	55
Patti Talbot English Version (Discussion)	58
<b>2세션/ Session 2</b>	
한미경 한글 토론문	64
Han, Meekyung English Version (Discussion)	68
코주에 아키바야시 한글 토론문	72
Kozue Akibayashi English Version (Discussion)	75
앤 라이트 한글 토론문	78
Ann Wright English Version (Discussion)	82
왕다닝 한글 토론문	86
Wang Danning English Verion (Discussion)	89
발표자 소개/ Speakers' Short Bio	92

세션 1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년, 성과와 과제

발제 : 이현숙(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2021.11.25. 서울

**프롤로그**

1990 년대를 전후에 시작된 세계 탈냉전의 힘은 냉전의 땅,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노태우 정부는 1988 년 7.7 선언을 통해 북방정책을 발표하고 오랫동안 적대했던 공산 진영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나섰다.

노태우 정부의 이런 과감한 정책행보에는 광주항쟁(1980) 이후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또한 큰 영향을 미쳤다. 1988 년 한국교회는 당시 시민들의 통일요구를 담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을 발표했는데 이 시기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이었던 임동원(전 통일부장관)은 “이 선언이 우리 사회와 통일정책 수립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회고했다.

한편 1970 년-1980 년대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한국여성들은 새로운 여성운동세력으로 성장했다. 여성들은 1985 년 3.8 세계여성의 날,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민족, 민주, 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을 선포했다. 1987 년에는 진보적 여성운동 플랫폼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을 공식 출범시켰다. 여연의 초대회장은 민주화운동의 대모 이우정교수. 그는 1988 년 일본여성지도자들과 만나 여성의 아시아 평화 전략을 공모하고 마침내 1991 년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아평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다. 오늘 우리는 ‘아평여’ 토론회 3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선배들의 평화노력을 복기하여 교훈을 찾아내고 이 시대 여성 평화운동이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따라서 이 글은 “아평여” 토론회 개요와 성과를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살핀 후 오늘의 시점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생산적 토론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 1. 1990년대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개요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아평여)” 토론회는 대한민국(남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측), 그리고 일본의 3자 여성 지도자들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4차에 걸쳐 도쿄, 서울, 평양, 도쿄를 순회하며 개최한 국제여성평화회의이다. 이 토론회는 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일제의 침략 및 식민지배의 청산과 배상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동아시아 군축 문제, 가부장제와 군사주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평화조건을 탐색한 토론회였다. 여성들은 통일될 때까지 3국을 순회하며 이 토론회를 지속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론회는 1993년 북핵 위기 발발과 남북관계 악화로 5차 토론회를 앞두고 중단되었다.

### ■ 1차 도쿄 심포지엄(1991)

일본여성단체들이 조직한 1차 남.북.일 3자 심포지엄은 1991년 5월 일본 도쿄와 코오베 두 곳에서 열렸다(05.31-06.02). 토론회 주역들은 남측의 이우정(남측 단장, 신민당 수석최고위원), 이효재(여연 회장),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 북측의 러연구(북측 단장, 최고인민회의 부회장), 정명순(통일문제연구소 참사), 리연화(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 지도원), 일본측의 도이 다카코(사회당 당수), 오타카 요시코(자민당 참의원), 미키 무츠코(미키 다케오 전 일본총리 부인), 시미즈 스미코(참의원 의원) 등이었다. 토론회 주제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남북통일을 위한 제안, 재일동포차별문제 등이었다.

이들은 아시아의 평화 조건을 제시하고 여성들의 힘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자는 토론을 벌였다. 남측이 제기한 평화 이슈는 분단으로 인한 여성과 민중의 고통과 원한, 여성들의 평화군축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이었다. 특히 일본군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류전쟁사에서 전례를 볼 수 없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종전 후 46년이 되도록 일본정부는 반성도 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으니 여성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북측의 이슈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미군의 핵무기 반입 반대, 미군철수, 남북불가침선언 등이었다. 일본 측은 이슈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 올바른 역사교육,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보상 등이었다(김윤옥, 2021).

이효재는 도쿄 토론회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다.

“주최 측 일본여성들은 식민지배의 사죄와 청산을 주장하는데 있어 정신대문제가 “조선 여성의 성과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남북여성

들은 분단이 식민지배의 연장으로서 자주적 통일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는데 공감하는 민족적 연대를 확인했다. 더욱이 윤정옥 교수가 정신대문제의 실상을 폭로하는 발표를 하여 가해국 일본여성의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 여성과 재일동포여성들은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식민지 지배의 청산과 자주성 회복이 이뤄질 수 없음을 공감하는 자리였다(이효재, 1999, 212 쪽).

토론 내내 400 여명이 모인 회의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토론 후엔 이런 모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발언들이 등장했다. 이에 이우정은 서울 2 차 모임을 제안하고 이어 려연구가 그 다음 평양 모임을 열겠다고 호응함에 따라 이 심포지엄은 3 국을 순회하는 국제회의로 발전하게 된다.

■ 2 차 서울 토론회(1991)

2 차 토론회는 1991.11.25-30 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아흔 아홉 아리랑고개를 넘어 성사된 토론회였다. 북측에서 려연구 단장을 비롯해 15 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 미키 무츠코 대표를 비롯해 11 명이 참석했다. 남측에서는 300 여명의 여성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서울 토론회는 분단 역사상 최초로 북한여성들이 DMZ를 넘어 남쪽 땅을 밟게 되면서, 그리고 려연구 단장이 독립운동가 여운형의 딸이라는 점에서, 또한 이번 토론회가 분단이후 최초로 민간차원에서 이뤄진 남북 민간교류이며 여성 주도로 성사된 남북 여성교류라는 점에서 취재 경쟁은 달아올랐다.

서울 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기조발제 및 강사	토론자
토론회 1. 사회: 이현숙 (여성의전화 지도 위원)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조 형(이화여대 교수)	김선옥(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 와다나베 미네(일본 YWCA 이사)
토론회 2. 사회: 한명숙 (민우회 회장)	'통일과 여성' 정명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히로세 레이코 (전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이경숙(숙명여대 교수)
토론회 3. 사회: 박혜란 (또하나의문화 동인)	'평화와 여성' 시미즈 스미꼬(일본 참의원 의원)	홍선옥(북한,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 김윤옥(기독교교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첫날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토론회의 남측 발제자는 가부장제에 대한 정의, 남측 사회의 성차별, 가부장제문화와 위계질서를 강화해온 주요 요인으로서 남북분단 상황,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남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 두 정부 간의 통일 회담에 여성 대표를 내는 일, 가부장제 문화와 남성 지배 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 남,북,일 여성들의 정신대 피해여성 해결 공동노력,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가부장제 개념에 대한 계급적 접근을 비롯해, 사회주의 혁명으로 북한 여성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인신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일본 측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부장제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이 식민지주의 뿌리였다고 강조했다. 질의 응답시간에는 주로 북측 토론자에게 질문이 쏟아졌지만 가부장제에 대한 남,북 양 체제간의 차이를 더 크게 드러낼 뿐이었다.

<통일과 여성> 토론에서도 북측의 련방제 통일방안과 남측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맞서 토론을 달궜다. 질의응답에서도 남과 북의 통일방안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남북이 만나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의 통일방안을 수립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평화와 여성> 토론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아시아의 평화조건을 제시했다. 일본측은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 과거 잘못에 대한 사죄와 청산, 그리고 일본의 전쟁 책임을 제시했다. 북측은 미군철수운동, 군축, 군사대결 해소 문제를 제시했다. 남측은 세계적인 핵 폐기와 일본의 핵 피해자 의식의 문제 그리고 가해자 의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북측 발표자들이 미군철수와 6.25 전쟁의 북침설을 주장해 회의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자연스럽게 플로어의 질문은 일본의 군사력증가와 핵 문제, 그리고 6.25 전쟁이 북침이나 남침이나 하는 문제와 일본의 군사력 증가와 핵문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남북의 견해차를 더 확인할 뿐이었다. 분단 46년 만에 남,북,일 사이에 열린 서울토론회는 남,북의 엄청난 견해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우정은 폐회사에서 최근에 한국전쟁 남침 설에 대한 증거들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하고, 분단, 전쟁, 평화 문제 등은 남,북,일이 서로 얽혀 있는 실타래와 같아 한 번에 풀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토론해가자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평양에서 만나자'며 따뜻한 인사를 나눈 후 통일을 위한 목상으로 토론회를 마감했다. 그러나 북측이 남측 언론의 비난, 당국의 과잉 경호, 반공단체들의 시위를 이유로 남은 일정을 뒤로하고 조기 귀환을 단행함으로써 서울토론회는 안타까움을 남겼다.

서울 토론회가 지난 얼마 후 남북 정부는 1991년 1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1992년 2월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년 말 가서명)도 발효되어 남북 역사에 새 장을 열었다

■ 3 차 평양 토론회(1992)

3 차 토론회는 1992.09.01-6 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이를 위해 남측에서는 이우정, 이효재, 윤정옥을 비롯한 9 명의 대표단과 12 명의 참관인이 DMZ를 넘어 평양을 방문했다. 여성들은 또다시 분단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일본 측에서는 미키 무츠코를 비롯한 5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인민문화궁전 원탁 회의실에 150 여명의 여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1992 년 초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선언을 발효한 뒤여서 분위기는 따뜻했다.

	기 조 보 고	보 충 토 론
토론회 I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강춘금(북한 사회과학원 실장)	이효재 (정신대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시게토 미야코(조선녀성과관련대하는일본부인연 락회 보좌원)
토론회 II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책임' 시미즈 스미코(일본 참의원 의원)	최훈춘(김일성대학 교수) 윤정옥(정신대대책협의회 공동대표) <b>보충발언</b> 김영애(재일민주여성동맹 후원자) 서정순(재일기독교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토론회 III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이우정(국회의원)	야마야 신고(일본기독교교풍회 회장) 조승조(북측, 사회과학원 실장)

평양 토론회 결과는 남측의 고별 성명에 잘 요약돼 있다. "①민족의 단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상이나 신앙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으로서의 이해를 높이고 자유로운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②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적 청산에 나서야 하며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진상 공개, 사죄와 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의 실시를 요구한다. ③미래 평화를 위해서는 아세아에서 핵과 군사 대국에 의한 위험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④남,북,일 여성들은 아세아에 침략의 지배와 역사를 영원히 종식시키고 인간으로서 함께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더욱 노력할 것이다. ⑤우리는 이를 위해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실행위원회를 결성했다. ⑥우리는 가능한 것부터 한 가지 씩 실천에 옮기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긴급한 문제다." 토론회 후 남측 대표단은 마지막 일정으로 김일성 주석과의 오찬을 가진 후 남으로 돌아왔다.

평양토론회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이효재의 발언이다. 그는 북측 기초보고("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보충토론에서 남측에서는 통일 이후 어떤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될 때 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두 가지 요소를 소개했다. 하나는 민족내부의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대외적인 종속성이 극복된 상태의 통일이다. 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 조건이 마련될 때 통일을 위한 남북의 대단결도 더 잘 이뤄질 수 있다는 논지.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권력과 물질의 공평한 분배와 민주화가 중요하며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권력과 물질의 분배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지방자치제 확대, '언론의 자유'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하나는 민족대단결이 담보되어야 자주와 평화의 원칙이 실현된다는 점이다. 민족의 자주화 없는 민족대단결은 불가능하고 민족대단결 없는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는 특히 여성들의 평화지향성이 민족대단결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여성이 가진 능력, 즉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능력을 개발하고 타인을 가족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마음과 개방성을 확대할 때 민족 공동체의 화해와 단결은 앞당겨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 새로운 인간, 새로운 민족을 탄생시키는 노력에 여성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타협할 수 있는가의 문제, 통일된 이후 사회상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남측은 남북이 각각 '민족공동체안'과 '고려연방제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결국 강자와 약자, 남자와 여자, 지방 사이의 차별이 없고 자연과 더불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여성들이 함께 고민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고려연방제'를 강조하고 국가 위치를 논할 때는 '중립국가' 안이 이야기될 것이라 답했다.

■ 4 차 도쿄 토론회(1993)

4 차 토론회는 다시 도쿄에서 열렸다(1993.04.24.-30). 당시는 북핵위기 발발로 토론회개최만으로도 성공이었다. 토론회는 아래의 두 주제를 중심으로 3 차에 걸친 논의들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 제	'일본과 남북조선, 진정한 화해를 구하며'	
토론회 1.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쟁 책임과 전후 보상 - 종군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이효재(정대협 공동대표) 최금춘(김일성종합대학 교수) 시미즈 스미꼬(일본 참의원 의원)
토론회 2.	'아세아 평화, 한반도 통일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홍선옥(평화군축연구소 소장) 김윤옥(한국 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 도이 다카코(일본 중의원 의원)

일본군'위안부'문제가 1965 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일본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필요와 요구가 반영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전체토론에서는 정신대문제 해결 없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반대(북측 참가자), 국제기구를 통한 정신대문제해결 노력(남측),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정신대문제에 대한 입장과 조사단 파견 경위(일본측), 사회의 진정한 의미(남측), 과거청산 없는 조일정상화의 불가능성(북측) 등이 제기되고 논의되었다.

전반적으로 4차 토론회는 북한의 NPT 탈퇴 직후 열린 탓인지 분위기가 가라앉은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윤옥은 “남북 체제가 주는 압력, 발언의 한계, 성과를 내야하는 압박감, 동일 주제의 반복에서 오는 지루함, 불투명한 남북의 정치상황, 등등, 여성 교류의 한계와 인식의 차이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출구를 찾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말하고 그래서인지 다음 서울 토론회 주제도 정하지 못한 채 고민을 안고 헤어졌다”고 회고했다(김윤옥, 2021).

## 2.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성과

### ■ 역사적 순간을 단숨에 낚아채다

“신이 역사 속을 지나가는 순간, 뛰어나가 그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다.”라는 말이 있다(비스마르크).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우정을 떠올린다. 그는 1980년 중반 이후 막 조성되기 시작한 탈냉전의 흐름을 낚아채 “아평여” 국제 토론회를 이끌어 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1988년 히로시마 평화 집회 발제에서 분단 극복과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청산 없이는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 일본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그는 특히 시미즈 스미코 일본부인회 회장을 설득, 일본에서 남북한여성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했다. 평소 남북 분단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느끼고 있던 시미즈 스미코는 이우정의 열정에 감동해 이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1991년, 이우정의 부탁은 현실이 되었다. 시미즈 스미코 의원은 2011년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1987년 8월 이우정 당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원자폭탄금지세계대회’에 참석차 일본에 왔다. 감시를 피해 밤에 그녀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 한국의 민주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대표가 북한동포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동족인데도 사십년 넘게 못 만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일본에서 북한 여성을 만날 수 없겠느냐”면서 남북한 여성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무려’ 여연구 당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몽양 여운형의 딸)을 말하는 게 아닌가(웃음). ....그 이후 4년간 인편을 통해 편지를 보낸 끝에 일본대회 개최가 결정됐다. 아마도 김일성 주석에게 편지가 전달됐던 것 같다”(seoul.co.kr 서울신문 2011.05.02.)

### ■ 여성 외교가 결실을 맺다

“아평여” 토론회 성사는 여성 외교(feminist diplomacy)의 성취였다. 외교는 설득, 협상, 타협의 과정이다. 나는 ‘여성과 인류의 자유, 이익, 평화를 위해 벌이는 설득, 협상, 타협 과정을 페미니스트 외교’라고 정의한다. 한국의 이우정이 일본의 시미즈 스미코를 설득한 것이나, 이우정의 부탁을 받은 후 인편을 통해 북한에 편지를 보내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국제평화토론회를 성사시킨 시미즈 스미코의 노력은 참신한 민간외교(공공외교)이며 페미니스트 외교였다. 후일 시미즈 스미코는 “아마도 김일성 주석에게 편지가 전달됐던 것 같다”고 회상했듯이 1991-1993 사이에 전개한 “아평여” 토론회는 동북아에서 페미니스트 민간 외교가 만들어 낸 첫 작품이었다.

### ■ 여성들, 분단 이후 최초로 DMZ를 넘다

남북 사이엔 DMZ(Demilitarized Zone)가 가로놓여 있다. DMZ는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중심으로 조성된 남북 사이의 비무장(?) 완충지대다. 남북을 방문하려면 DMZ를 건너야 한다. 휴전 후 남북 민간인의 왕래는 철저히 금지되었다. 그런데 1991년 11월 북측 여성 대표단이 토론회 참석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건너 서울을 방문하고 1992년에는 토론회 참석을 위해 남측 여성 대표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을 방문했다. 1980년대 남북 정부가 주도하는 이산가족상봉이나 음악인, 체육인의 교류가 있었지만 민간 단위의 남북교류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민간교류, 여성교류로는 분단 이후 최초의 일로써 분단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 ■ 아시아 평화 의제를 설정하고 평화조건을 탐색하다

“아평여” 토론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남·북·일 여성들이 여성의 관점에서 아시아 평화 의제를 설정하고 아시아의 평화 조건을 탐색한 회의였다는 점이다. 우선 3국의 여성 지도자들은 여성의 경험을 기반으로 일본의 침략전쟁 및 식민지 지배, 분단 및 통일, 가부장제 문화와 군사주의 문제, 그리고 정신대 문제를 주요 아시아 평화 의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 의제들을 중심으로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과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과 전후 보상, 일본천황제의 성차별적 성격과 식민지 조선민족의 말살을 꾀한 인종차별적 성격,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무효성,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 남북한 민족대단결, 외국군대 및 대규모 군사훈련, 조일국교정상화, 동북아 공동안보, 동북아 비핵지대화, 핵무기, 핵기지 철폐와 대규모 전쟁훈련, 등의 문제 등을 각각 제기하고 토론했다. 이와 같이 남·북·일 3국 여성이 아시아 평화 의제를 설정하고 3국을 돌며 평화 조건과 여성의 역할을 광범하게 마음을 열고 토론한 것은 동북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나는 장을 열다

서울 토론회는 남,북이 토론 이슈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격돌한 자리였다. 거부장제, 성차별, 통일방안, 한국전쟁의 기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남북여성들은 설전을 벌였다. 이들은 사사건건 자기주장의 우월성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가 만나 엄청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상호간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이에는 여전히 민족애와 자매애가 흐르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처럼 “아평여” 토론회는 3 국의 대표들에게 함께 만나 서로 다른 관점과 의견을 나누고 동시에 통일과 아시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공유하는 전례 없는 토론광장을 제공했다.

####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공동과제로 채택하다

한국여성들은 1990 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창립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돌입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분단 문제와 함께 이듬해부터 열린 ‘아평여’ 토론회(1991-1993)의 주요 토론 주제로 부각됐다.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의 참여와 발표는 일본여성계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일본정부의 책임으로, 아시아 평화 이슈로 인식하고 남,북,일 여성이 이 문제를 공동의 대응 과제로 채택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남,북,일 여성들은 토론회가 중단된 후에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회의를 따로 개최하며 문제해결과 세계여성연대의 지평을 확장해 가고 있다.

#### ■ 남,북,일 간 화해의 계기를 열다.

“아평여” 토론회는 남,북,일 간 여성들 사이에 상호 이해와 화해의 계기를 열어준 공간이기도 했다. 일본의 침략전쟁과 오랜 식민통치는 한반도와 일본 사람들 사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증오심과 적대감을 남겼다. 남측의 이우정은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마음 속 깊이 새겨진 일본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일본인들을 대하는 것이 무척 괴로웠다고 말하고 그러나 일본이 저지른 죄악을 마음으로부터 사죄하는 일본 대표들을 보고 인식이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있다(서울토론회 보고집, 22 쪽). 처음 토론회를 주선했던 일본 대표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분단의 직접적 원인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있음을 인정하고 과거 일본침략행위로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에 대해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몇 번이고 사죄를 표했다. 이처럼 “아평여” 토론회는 일본여성들이 남북 여성들과 화해하는 공간이며 시간이기도 했다.

분단과 6.25 전쟁은 남북한 동포 사이에 깊은 반목과 적대감을 심었다. 그러나 토론회를 통해 남북여성들은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은 바로 민족을 살리는 길이며 여성들이 한 많은 불행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할 수 있었다. 나아가 민족이 단합하고 통일을 이루자면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민족적 연대와 화해의 계기를 열었다.

#### ■ 협력과 연대의 기틀을 만들다

아평여 토론회는 남,북,일 3자 여성들의 협력과 연대가 만들어 낸 역사적 결과물이었다. 남북 사이의 긴장고조로 토론회가 중단되고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3국은 각 실행위원회를 독자적인 여성단체로 출범시키며 보다 공고한 협력과 연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남측 실행위원회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여성회)로, 북측 실행위원회는 '아시아여성들과 연대하는 조선여성협회(1998)'로, 일본측 실행위원회는 '조선 여성과 연대하는 협의회'로 각각 새롭게 출범했다. 이 조직들은 3국간 협력과 연대의 거점으로, 또한 국내 여성평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아평여" 토론회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 ■ 남,북 양자 여성 교류의 디딤돌을 놓다

'아평여' 토론회 경험과 조직은 2000년 대 남북 여성 대화를 매개하는데 디딤돌이 되었다. 2001년 남북공동행사를 위한 남북실무협상단 일원으로 참석했던 나는 북측에 "아평여" 토론회 재개를 제의했다. 북측도 이 토론회를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북측은 "이제 6.15 공동선언 시대가 되었으니 남북 양자 교류 시대를 열자"고 역 제의했다. 그로부터 긴 협상 끝에 7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남북여성통일대회'를 금강산에서 개최(2002)할 수 있었다. 이 대회를 기점으로 남북은 '남,북,일 3자 여성교류 시대'를 마감하고 '남북 양자 여성교류시대'로 진입했다. 이후 남북 여성 교류는 남북을 오가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안타깝게도 이후 남북관계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여성 교류도 '가다 서다'를 되풀이 하고 있다.

### 3. 향후 과제

끝으로 이상의 "아평여" 토론회 참가 경험과 2000년대 남북여성교류 경험을 토대로, 또한 UNSCR 1325의 빛에서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 남북 여성의 공동과제 모색

2000년대 남북여성들은 "6.15 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통일의 문을 열자"며 여성교류를 이어갔다. 그러나 만남은 시간이 지나면서 동어반복의 지루함에 빠지고 점차 활력을 잃어간 측면이 있다. 나는 남북이 공동과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남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공동의 과제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평여' 토론회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공동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했던 것이 좋은 사례다. 앞으로의 공동 과제는 남북여성에게 두루 실익이 있는 과제이면 최상일 것이다. 남북 여성이 '유엔결의안 1325' 의제 도입과 이행을 위한 공동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과제일 수 있다. 또한 팬데믹 이슈, 4차 혁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기후변화, 정보통신기술(ICTs)과 같이 최근 대두하고 있는 이슈에서 남북

여성공동의 과제를 찾는 것도 실익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 '동북아 WPS 여성네트워크' 구축

최근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미,중 패권 경쟁이 심상치 않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소장(문재인 정부 전 통일외교안보특보)은 현재의 미중 관계가 매우 위태롭다고 지적하고 대만해협, 남중국해, 한반도가 미중 대결의 발화 지점(flash point)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아평여" 토론회 30 주년을 맞는 지금, 동북아 상황은 훨씬 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다행히 오늘 여성들의 대응은 과거에 비해 더 용이해졌다. UNSCR 1325 라는 국제 평화도구를 가지고 있어서다. 각 정부들과 국제사회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여성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를 활용해 여성들이 '동북아 WPS 네트워크' 같은 여성 플랫폼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과 사무국이 확보된다면 이 네트워크는 역내 현실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포럼이 될 수 있다.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국제 정치와 외교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이 UNSCR 1325 의 요구다. 이 요구를 지속가능하게 이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동북아 WPS 네트워크' 같은 지역별 1325 네트워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평여" 토론회를 계승한 한국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여성회)는 수년 동안 '동북아 여성평화회의-여성 6 자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재정문제 등으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 ■ 협력과 연대의 동북아 다자협력체제 구축

"군사적 관점으로만 상대를 보면 미움과 분노 밖에 생기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긴장을 없앨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지배의 역사 뿐 아니라 앞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상황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시대는 100 년도 더 갈 것이다."

30 년 전 이우정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를 꿈꾸며 외쳤던 시미즈 스미코의 말이다. 그는 일찍이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않는 한 평화는 없다며 우리에게 숙제를 던졌다. 동북아는 상습적인 분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자안보협력기구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기존의 군사 중심의 집단안보체제와는 다른 성격의 새로운 공동안보협력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열려 있다는 얘기다. 지역에 새 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협력과 연대, 인간안보 및 생태계안보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다자적 안보협력체의 설치가 필요하다. 역내 국가들과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서는 새로운 국제규범, 규칙, 절차를 만들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위협을 종식시키는 다자적 안보협력 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코로나-19, 핵 위기, 신 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 등은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들이다. 이제 여성들이 동북아에 어떻게 새 평화 질서를 추동해 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할 때다.

## 에필로그

“아평여” 토론회는 탈 냉전기 남,북,일 여성들이 여성의 역사적 피해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평화 조건을 탐색한 동북아 최초의 국제여성평화회의였다. 일제의 침략 및 식민지배와 여성에 대한 성 침탈, 전쟁과 이산가족의 슬픔, 남북의 군사대결과 군사주의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고 목도한 3 국 여성들은 이 피해경험을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내 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다. 이들은 더 이상 가부장제 군사주의 체제의 ‘피해자 여성’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주도적으로 아시아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변화의 주체’로서 남,북,일 3 국 여성의 평화 역량과 연대의 힘을 모아내고자 했다.

그러나 문소정의 지적대로, “동아시아의 평화 의제가 강대국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전후 책임 등 동아시아의 첨예한 역사적 쟁점일 때, 비록 여성의 이름으로 민족/국가의 경계를 횡단한 초국적 소통일지라도 동아시아의 차별적 민족/국가의 권력관계에서 성별화된 여성 주체가 민족/국가의 정체성의 정치학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음”을 동시에 보여줬다.

이제 30 년 전, 동북아 냉전체제에 과감하게 도전했던 “아평여” 토론회는 여성들의 자랑스러운 전설이 되었다. 현해탄 너머로, DMZ 너머로 화해와 평화의 다리를 놓고자 했던 토론회 주역들의 이상과 열정은 이제 우리 영감의 원천이며 우리 발길을 이끄는 북극성이 되었다. 한국의 이우정, 이효재, 북한의 려연구, 일본의 미키 무츠코, 도이 다카코, 시미즈 스미코, 또한 2000 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을 이끌었던 마츠이 야요리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었다. 그분들의 평화 열정을 다시 새기며 삼가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아평여” 토론회 40 주년에는 남,북,일 여성들의 공동 기념식이 열릴 수 있길 고대한다.

## 참고도서

- 김정수, “남북여성교류의 성과와 과제”, 2018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자료
- 김윤옥, ‘남북여성교류의 전망과 과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제3차 정기총회 보고서, 1992.
- , ‘남북여성교류 첫 물꼬에 대한 회상’,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간담회 자료, 2021
- 문소정, ‘동아시아 여성평화운동과 일본 여성의 횡단정치학’, [사회와역사], 한국사회

사학회, 2011. academic.naver.com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청림출판, 2021.

신준영, '아흔 아홉 아리랑고개 넘어' 성사된 남북여성토론회, 월간 말, 1991.12.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준비위원회, "평화와 통일을 향한 따스한 자매애:'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보고집" 199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 자료집". 1992.

윤설영, (10) 시미즈 스미코 전 일본 사민당 의원, 서울신문 2011.05.02., seoul.co.kr

이우정, [여성이 일구는 평화], '92년도~'94년도 국회 외교.통일.여성 부문 활동 보고서, 1994.

이효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엮음,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1999

임동원, [피스메이커], 중앙북스, 2008

신준영, '아흔 아홉 아리랑고개 넘어' 성사된 남북여성토론회, 월간 말, 1991.12.

## **Session 1: Presentation**

### **30th Anniversary of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Achievements and Tasks Ahead**

**Lee, Hyun-Sook**

(Honorary Representative, Women’s Forum for Peace & Diplomacy)

Nov. 25, 2021, Seoul

#### **Prologue**

The power of the global post-Cold war era, which started around the 1990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land of the Cold War. South Korea’s Roh Tae-woo administration announced its North Korean policies through the July 7th declaration in 1988, normalizing the long-hostile relations with the communist camp and drastically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The democratic movement and unification movement of civil society after the Gwangju Uprising (1980)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s bold policy moves. In 1988, the Korean Church announced the “Korean Christian Church Declaration on National Unification and Peace” with citizens’ demands for unification. Lim Dong-won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then a delegate in high-level inter-Korean talks, recalled that “this declar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our society and unification policymakers.”

Meanwhile, Korean women, who took lead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unification movement in the 1970s and 1980s, had developed an emerging women’s movement. Women held the Korean Women’s Day Convention on March 8, 1985, and declared a “women’s movement with the nation, democracy, and the people.” In 1987,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WAU) was officially launched as a platform for progressive women's movement. Professor Lee Woo-jung, the godmother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served as the first president of KWAU. Lee met with Japanese women leaders in 1988 to discuss women's strategies for peace in Asia, and finally, in 1991, hosted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hereinafter the Seminars).”

Thi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We gathered today to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Seminars while reviewing the peace efforts of our seniors to draw lessons and explore tasks that the current women's peace movement should develop. Therefore, his paper aims to present an overview of and highlight achievements of the

Seminars, and present future tasks from current perspectives. I hope this would help initiate a productive discussion.

## **1 . Overview of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in the 1990s**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were international seminars on women and peace hosted in Tokyo, Seoul, and Pyongyang four times between 1991 and 1993 by women leaders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and Japan. Women planned to continue the seminars by touring three countries until reunification, but the seminar was suspended ahead of the fifth seminar in 1993 due to the outbreak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worsening inter-Korean relations.

### **■ 1st Seminar in Tokyo in 1991**

The 1st Seminar organized by women’s organizations of Japan was held in Tokyo, in May 1991 (May 31 - June 2). The distinguished participants from three countries were Lee Woo-jung (Co-chair,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and Lee Hyo-ja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and Yun Chung-ok (Co-chair,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of South Korea, Lyuh Yeon-gu (Vice President, Supreme People’s Assembly), Chung Myeong-soon (Officer, Research Center on Unification), and Lee Ryeon-hwa (Leader, Chosun International Culture and Communications Association) of North Korea, as well as Takako Doi (Chairwoman, Social Democratic Party), Yoshiko Otaka (Liberal Democratic Party Member,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Miki Mutsuko (the wife of Japan’s former Prime Minister Miki Takeo), and Shimizu Sumiko (Chair, Japanese Women’s Association) of Japan.

The speakers and discussants presented conditions for peace in Asia and engaged in discussions about building peace in Asia through women’s efforts. South Korea raised the liquidation of Japanese colonial history,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s peace issues. North Korea’s issues included the non-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pposition to the U.S. military’s introduction of nuclear weapons, withdrawal of U.S. troops, and declaration of non-aggress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issues raised by the Japanese side were Japan’s responsibility for colonial rule, proper history education, and Japan’s apology and compensation for colonial rule. Throughout the debate, the conference hall was full of energy. Remarks after the discussion encouraged the continuation of meetings. Accordingly, Lee Woo-jung proposed a second meeting in Seoul and Lyuh agreed to hold the following meeting in Pyongyang. As such, the symposium developed into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ouring the three countries.

■ 2nd Seminar in Seoul in 1991

The second seminar was held in Seoul from November 25-30, 1991. Preparations for the seminar faced many challenges, but the seminar was held in the end. Fifteen delegates including Lyuh Yeon-gu, who served as the lead, attended from North Korea. Eleven delegates including Miki Mutsuko, who served as the lead, attended from Japan. More than 300 women from South Korea attended the event. The seminars attracted a lot of media coverage as this was the first time North Korean women visited South Korea through the DMZ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Lyuh Yeon-gu, who led the North Korean delegation, was the daughter of well-known independence movement activist Lyuh Woon-hyung; and the seminar was the first non-governmental inter-Korean civilian exchange and women-led inter-Korean women's exchange since the division.

The Seoul Seminar consisted of the following programs.

	Keynote Speaker	Discussant
Seminar 1. Moderator: Lee Hyun-Sook (Consulting member, Korea Women's Hotline)	"Patriarchal Culture and Women" Cho, Hyung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Kim Seon-ok (Central Committee Member, Democratic Women's Union of Korea) Watanabe Mina (Board member, YWCA Japan)
Seminar 2. Moderator: Han Myeong-sook (President, Korean Women Link)	"Unification and Women" Chung Myeong-soon (Secretariat, Peace and Unification Committee)	Hirose Reiko (Former member, Yokohama City Council) Lee Kyungsook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minar 3. Moderator: Park Hyeran (Member, Another Culture)	"Peace and Women" Shimizu Sumiko (Member,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Hong Sun-ok (Director, North Korea Military and Peace Research Center) Kim Yoon-ok (Director, Christian Women and Peace Research Center)

On the first day, the seminar on "Patriarchal Culture and Women" discussed the definition of patriarchy from a South Korean perspective, gender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major factor in strengthening patriarchal culture and social hierarchies, and measures to achieve peace and gender equality in Asia. Proposed measures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cluded having women representatives in the inter-Korea government unification summit, working to change

the patriarchal culture and male-dominated structure, and putting collective efforts from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to resolve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response, the North Korean side presented a class-based approach to the concept of patriarchy and argued that North Korean women have been liberated from social inequalities and oppression after the socialist revolution. The Japanese side stressed the problem of patriarchal education, which culminated in an emphasis on the emperor, and argued that this had been the root of colonialism. During the Q&A session, many questions were directed to the North Korean discussant. The discussion revealed a clear differ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perspectives on patriarchal systems.

In the “Unification and Women” seminar, heated discussions took place between North Korea’s Federation Unification Formula and South Korea’s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Confederation). Questions poured on the different plans for unification tha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d, but both sides ran in parallel lines on this issue. Participants concurred that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meet to build plans for unification at the civil society level rather than at the government level.

In the “Peace and Women” seminar, each speaker and discussants presented conditions for peace in Asia. The Japanese speaker emphasized Japan's correct historical awareness, apologies for and resolution of past faults, and fulfillment of its war responsibilities. The North Korean discussant stressed activism for withdrawal of U.S. troops, disarmament, and resolution of military confrontation to achieve peace in Asia. The South Korean discussant argued for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worldwide and emphasized that Japan should change its consciousness that emphasizes victimhood of nuclear bombing to one that recognizes its positionality as the perpetrator.

In this discussion, the North Korean discussant surprised South Korean participants by arguing that women should engage in activism for the withdrawal of U.S. troops and the Korean war started due to South Korea’s invasion. So questions on the floor were concentrated on the controversy of whose invasion sparked the Korean war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Japanese military power and the nuclear issue. However, the questions only confirmed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 two Koreas.

In her closing remarks, Lee Woo-jung received applause for stating that recent findings show the evidence of North Korea’s invasion, and thus the complexities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will not be resolved at once and will need to be continuously discussed. Participants ended the seminar with warm goodbyes until the Pyongyang seminar and a moment of silence for reunification. However, the Seoul seminar left regrets as well with North Korean attendees leaving earlier than scheduled due to criticism from the South Korean media, excessive security by the authorities, and protests by anti-communist groups.

After the seminar, South and North Korea adopted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nd the Joint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December 1991 and they became effective in early 1992.

■ 3rd Seminar in Pyongyang in 1992

The third seminar was held in Pyongyang on September 1-6, 1992. Nine South Korean delegates including Lee Woo-jung, Lee Hyo-jae, and Yun Chung-ok, and twelve observers visited Pyongyang by crossing the DMZ. Women again set a new milestone in the history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Five delegates from Japan, including Miki Mutsuko, attended.

The seminar was held with 150 women in attendance at the People's Palace of Culture roundtable conference room. The event took place in an amicable atmosphere.

	Keynote	Discussion
Seminar I	<p>“Unification of the People and Role of Women”</p> <p>Kang Chun-geum (Associate Manager, North Korean Academy of Social Sciences)</p>	<p>Lee Hyo-jae (Co-chair,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p> <p>Shigeto Miyako (Executive Assistant, Association of Japanese Women in Solidarity with Women of Chosun)</p>
Seminar II	<p>“Japanese Colonial Rule and Post-war Responsibilities”</p> <p>Shimizu Sumiko (Member,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p>	<p>Choi Hun-chun (Professor, Kim Il-sung University)</p> <p>Yun Chung-ok (Co-chair,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p> <p><b>Additional Discussion</b></p> <p>Kim Young-ae (Donor, The Democratic Korean Women's League in Japan)</p> <p>Seo Jung-soon (Executive Director, National Christian Church Women United in Japan)</p>
Seminar III	<p>“Peace-making and Women’s Role”</p> <p>Lee Woo-jung (Member,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p>	<p>Yamaya Shinko (President, Kyofukai - Japan Christian Women's Organization)</p> <p>Cho Seung-jo (Associate Manager, North Korean Academy of Social Sciences)</p>

The results of the Pyongyang seminar are well summarized in South Korea’s farewell statement. “①For the unity of the Korean people,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enhance understanding and engage freely in exchange beyond differences in ideologies and faith. ②Japan should resolve historical issues from Japanese colonial rule.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we demand that Japan investigate the truth, apologize and make reparations, and educate to prevent future recurrence. ③Dangers of nuclear and military powers in Asia should be eliminated for future peace. ④South Korean, North Korean, occupation in Asia and foster an environment where we can live together as humans. ⑤To this end, we formed the “Executive Committee for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⑥We will take concrete actions by doing what we can, one by one. In particula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s urgent.” After the seminar, the South Korean delegation had a luncheon with Kim Il-sung and returned to South Korea.

■ 4th Seminar in Tokyo in 1993

The 4th Seminar was held again in Tokyo (April 24-30, 1993). The event was held at a precarious time given the outbreak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seminar deepened discussions from the previous three seminars, focusing on the following two topics.

Topic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eeking True Reconciliation”	
Seminar 1.	“Japan’s Colonial Rule, War Responsibilities and Post-war Reparations: Focusing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Lee Hyo-jae (Co-chair,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Choi Geum-chun (Professor, Kim Il-sung University) Shimizu Sumiko (Member,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Seminar 2.	“What will we do to Achieve Peace in Asia and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Hong Sun-ok (Director, North Korea Military and Peace Research Center) Kim Yoon-ok (Director, Christian Women and Peace Research Center) Takako Doi (Chairwoman, Social Democratic Party)

In this discussion, the fallacies in the Japanese government's argument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ad been resolved through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1965 was pointed out, and the importance of seeking a victim-centered resolution that reflects victims’ needs and demands was emphasized. In the overall discussion, the following points were raised and discussed: Opposition to Japan becoming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without resolv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North Korean participant),

attempts to resolve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uth Korea), the st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nd its dispatch of an investigation team (Japan), the true meaning of apology (South Korea), the impossibility of normalization of North Korea-Japan relations without resolution of historical issues (North Korea).

Held shortly after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the fourth seminar was held in a somber mood. Kim Yoon-ok reflected that "the pressures of the inter-Korean system, limitations of the keynote and discussion speeches, pressures to produce results, boredom from the repetition of the same topic, the opaque political situ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limitations of women's exchange and differences in perspective exacerbated, and the need to find a new exit emerged. With such challenges, the attendees parted ways without even agreeing upon the topic of the next seminar in Seoul."

## **2. Achievements of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 **■ Historical moment seized**

"The statesman's task is to hear God's footsteps marching through history and to try and catch on to His coattails as He marches past" (Bismarck). I think of Lee Woo-jung whenever I hear this saying. She had seized the wave of post-Cold war that emerged in the mid-1980s and led the International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During her keynote at the Hiroshima Peace Assembly in 1988, Lee expressed her view that true peace can not be achieved in East Asia without overcoming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solving colonial history, which inspired Japanese women to participate. In particular, she persuaded Shimizu Sumiko, chairperson of the Japan Women's Conference, to create a venue in Japan for women of the two Koreas to meet. Shimizu, who recognized Japan's responsibility in the division of the Koreas, was impressed by Lee Woo-jung's enthusiasm and made every effort. Four years later, in 1991, Lee Woo-jung's request became a reality.

### **■ Women's Diplomacy came to fruition**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was made possible through feminist diplomacy. Diplomacy is a process of persuasion, negotiation, and compromise. I define 'feminist diplomacy' as the process of persuasion, negotiation, and compromise for the freedom, interests, and peace of women and humankind. Lee Woo-jung's effort to persuade Shimizu Sumiko, and Shimizu's efforts to hold the seminar by sending letters to North Korea after being persuaded by Lee Woo-jung demonstrated novel civilian diplomacy and feminist diplomacy. Later, Shimizu recalled, "Maybe the letters were

delivered to Kim Il-sung."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held between 1991 and 1993 was the first work created via feminist civilian diplomacy in East Asia.

■ Women crossed the DMZ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division

The Demilitarized Zone (DMZ) l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DMZ is an unarmed buffer zone created aroun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that divides the two Koreas. One needs to cross the DMZ to visit the other. After the Korean War ceasefire, civilian visit between the two Koreas was strictly prohibited. However, in November 1991, the North Korean women's delegation crossed the MDL to attend the seminar, and in 1992, the South Korean women's delegation crossed the MDL to visit Pyongyang. While government-led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and exchanges of musicians and athletes took place in the 1980s, this was the first civilian-led inter-Korean exchange. This crossing took place for the first time in civilian and women's exchange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ed a new milestone in the history of division.

■ Capitalism and Socialism Encountered

The Seoul seminar saw the fiercest clash of North and South Korean participants on the discussion topics. Women from the North and South disagreed over patriarchy, gender inequality, road to unification, and origin of the Korean War. In every case, the women tried to assert that their opinion was superior. The encounter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demonstrated a huge difference in perspective. Despite the huge differences, they also confirmed sisterhood and solidarity among the participants. Thus Seminars offered unprecedented forum for participants from three countries to meet and share their different opinions as well as women's will to unification of two Koreas and peace-building in Asia.

■ Resolu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dopted as a joint task

South Korean women established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Korean Council) in 1990 and started the movement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is issue emerged as the main discussion topic of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1991-1993) alongsid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articipation of Yun Chung-ok, co-chair of The Korean Council, in the Seminars was instrumental in Japanese women recogniz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s their own issue, as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as a peace issue and in the adoption of this issue as a joint task of women from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Even

after the Seminars were no longer held, women from the two Koreas and Japan held a separat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issue, expanding international women's solidarity and resolution of the issue.

■ Framework of cooperation and solidarity created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was a historical milestone created through the cooperation and solidarity of women from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After the seminar was suspended and the future became uncertain, the three countries reorganized executive committees into individual women's organizations and created a stronger framework for cooperation and solidarity. The South Korean executive committee became Women Making Peace, the North Korean executive committee became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in Solidarity with Asian Women (1998), and the Japanese executive committee became Council in Solidarity with Korean Women. These organizations serve as bases for cooperation and solidarity between the three countries and as the center of the domestic women's peace movement, continuing the spirit of the Seminars.

■ Stepping stone for women's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laid

The experience of organizing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served as a stepping stone in mediating inter-Korean women's dialogue in the 2000s. While participating in the working-level negotiation team for the 2001 inter-Korean joint events, I proposed to the North to resume the Seminars. The North was also familiar with the Seminars. However, they proposed to open an era of bilateral exchanges given the adoption of the June 15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After a long negotiation process, we held a large-scale "South and North Korean Women's Unification Meeting" with 700 attendees at Mt. Geumgang (2002). With this meeting as a turning point, North and South Korea ended the "era of three-way women's exchange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and entered the "era of bilateral women's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ince then, inter-Korean women's exchanges have proceeded in various forms between the two Koreas. Unfortunately, as North-South Korean relations fluctuated, women's exchanges have been affected as well.

### **3. Future Tasks**

I will present three tasks in light of my experiences participating in the abovementioned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engaging in North-South Korea women's exchanges in the 2000s, an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UNSCR 1325).

■ Finding joint tasks for women from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2000s, women from South and North Korea continued women's exchange, hoping to "open the door to unific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June 15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However, as time passed, the meeting faced repetition of the same language and gradually lost vitality. I think this happened because the two Koreas had not established joint tasks.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for the two Koreas to find common tasks. That way, the momentum of the meeting can be maintained. The adop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s a joint task at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is a good example. The joint task would be best if it is beneficial to both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women. Seeking a joint strategy for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UNSCR 1325 agendas could be a good joint task. In addition, it may be beneficial to develop joint tasks in emerging issues such as the pandemic, the fourth revolution, building women's economic capacities, climate change, and ICTs.

■ Establishing "East Asia WPS Women's Network"

The recent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in East Asia is concerning. Moon Chung-in, director of the Sejong Institute (former special advisor on unification,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affairs under Moon Jae-in administration), points out that the current U.S.-China relationship is precarious and that the Taiwan Strait, the South China Sea, and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come flashpoints for U.S.-China confrontation. On the 30th anniversary of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the situation in East Asia is much more urgent.

Fortunately, it has become easier for women to respond than in the past, thanks to an international peace tool we have called UNSCR 1325.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are willing to encourage and support women'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sing these changes, women can respond by creating women-based platforms such as the "East Asia WPS Network." If the budget and secretariat are secured, this network can function as a major forum that affects regional politics. For women to exert political influence 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diplomacy for peace in Asia, I think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regional 1325 network such as the "East Asia WPS Network."

■ Build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in East Asia based on cooperation and solidarity

"When we view others solely from a military point of view, only hatred and anger would arise. We have to ponder on how to get rid of tension. We need to reflect on not only the history of occupation in East Asia but also what to do with the East Asia region

in the future. If we do not respect each other's culture and do not contemplate on creating a new future and a new situation in the region, this era will last for another 100 years."

The above are Shimizu Sumiko's words, who dreamed of and called for peace in Asia with Lee Woo-jung 30 years ago. She had given us tasks early on, noting that peace cannot be achieved without establishing a new order in East Asia. To create a new order, a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Even though East Asia is constantly facing disputes,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organiz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This absence opens up more space to create a new kind of cooperation organization that is different from existing military-centered collective security systems in other regions. Depending on the political will of countries and members in the regions, new international norms, rules, and procedures can be created to resolve disputes peacefully and form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that would end threats. It is time for women to think through how they can build a new order in East Asia, given current challenges such as COVID-19, nuclear crisis, and the U.S.-China conflict.

## **Epilogue**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was Northeast Asia's first international women's peace conference in which women from South, North, and Japan explored Asian peace conditions based on women's historical damage experiences during the post-Cold War. Women from the three countries, who experienced Japanese invasion, colonization, sexual slavery of women, the sadness of war and separated families, military confrontation, and discrimination caused by militarism between the two Koreas, sought to bring this damage to the forefront of history and build an Asian peace regime. They rejected the identity of the "female victim" in the patriarchal militarist system and sought to gather the peace capabilities and solidarity of women from the three countries as the "main agent of change" to build peace in Asia.

The seminars, however, showed simultaneously that when East Asia's peace agenda is a sharp historical issue in East Asia such as the war of aggression, colonization, and post-war responsibility, it is not easy for the gendered subject as women to go beyond the politics of ethnic/state identity under the East Asia's discriminatory ethnic/state power relationship even if it is transnational communication across ethnic/state boundaries in the name of women", as Moon So-jung pointed out.

Now,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which boldly challenged the Cold War system in East Asia, have now become a proud legend for women. The ideals and passion of the organizers who wanted to build a bridge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beyond the DMZ and the Korea Strait have now become the source of our

inspiration and the North Star that leads us. Lee Woo-jung and Lee Hyo-jae of South Korea, Lyuh Yeon-gu of North Korea, and Miki Mutsuko, Takako Doi, Shimizu Sumiko, and Matsui Yayori, who led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f Japan had passed away. May they rest in peace.

## Bibliography

Kim, Jeong-soo. "nambukyösönggyoryuüisönggwawakwaje [Achievements and Tasks of North-South Korean Women's Exchange]," Presented at 2018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North Korean Studies.

Kim, Yoon-ok. "nambukyösönggyoryuüichönmanggwakwaje [Prospects and Tasks for North-South Korean Women's Exchange]" Women Making Peace, Report for the 3rd General Meeting. 1992.

Moon, Chung-in. *munjönginüimiraeshinario:k'orona19, mi.chungshinnaengjöñ, han'gugüisönt'a*[Moon Chung-in's Future Scenario: COVID-19, U.S.-China's New Cold War, Choices of Korea], Seoul: Chunggrim Publishing, 2021.

Moon, So-jung, "Transversal Politics of Japanese Women under Postcolonial Rule in East-Asia", [Society and History], Korean Social History Association, 2011. Academic.naver.com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Warm Sisterhood towards Peace and Unification: Report of the Seoul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1992.

Lee, Woo-jung, "[yösöngiilgunünp'yöngghwa] t'r92nyöndo~t'94nyöndo kuk'oeogyo.t'ongil.yösöngpumunhwaltongpogosö [[Women Building Peace] Report on Diplomacy, Unification, and Women related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between 1992-1994]," 1994.

Lee Hyo-ja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ocial Movement for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Compiled by Korea Women's Hot Line, [History of Korean Women's Human Rights Movement], 'Hanul Academy, 1999

Lim, Dong-won, *p'isümeik'ö* [Peacemaker], Seoul: Joongang Books, 2008.

Shin, Joon-young, "ahünahopariranggogaenömot' söngsadoennambukyösöngt'oronhoe [North and South Korean Women Seminars Held After Climbing Through Ninety-Nine Arirang Hills]," *wöl-kan mal*, 1991.12.

Yoon, Seol-young, (10) Shimizu Sumiko, Former Social Democratic Party Member of Japanese Diet.

세션 1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년, 성과와 과제

토론 :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021. 11. 25. 서울

1. 들어가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1991년-1993년)(이하 토론회)는 식민주의, 민족, 이념, 분단, 언어 등 다양한 경계에 놓인 여성들이 경계를 가로질러 새로운 출발을 모색했던 초국적 여성 연대의 주요한 사례였다. 일본 도쿄와 남한의 서울, 북한의 평양을 오고 가며 여성이 주도하는 탈식민·평화 연대를 구축하고자 했다. 벼락처럼 닥쳐온 탈냉전, 민주화의 흐름 속에 변방의 여성들이 민족차별, 성차별이라는 2중·3중의 억압을 딛고 인권과 평화, 성 평등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실현시키고자 한 자리에 모였다.

이현숙 선생님의 발제 내용을 읽으며, 선배들이 닦아놓은 토대 위에 오늘날 우리가 있음을 새삼 환기한다. 상상 불가능했던 희망을 구현하고, 놀라운 통찰력과 실천력으로 또 다른 미래를 보여 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시간이 무려 30여년 전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라움을 금할 길 없다. 이현숙 선생님이 지적하신 토론회의 내용과 의미에 대부분 동의하며, 다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토론문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는 과거에 석화된 채 오늘날 그 의미를 애써 찾으려는 현재적 의미만 부각되어, 의도치 않게 분절되고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는 비록 2년 간 4차례에 그쳤지만 당시 여성들이 붙들고 해결하려 했던 과제와 이를 위한 연대의 실천은 특정 시공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확장되고 공명되어 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부 과정과 내용만 공유하고자 한다.

토론문의 상당부분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와 발표자가 2014년부터 진행한 구술사 작업의 일환으로 수집된 자료, 발표자의 기출간된 논문 등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힌다.

2. 연대의 핵심 매개체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첫 모임(1991년 5월 31일)에서부터 핵심 논제였다. 일본의

시미즈 스미코 참의원(사회당)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 책임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던져지고 있는 과제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한다.<sup>1</sup>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였던 이효재와 윤정옥이 한국측 대표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정신대의 자취를 찾아서’ 조사 결과를 소상히 밝혔으며, 일본측 발언자였던 다카하시 기쿠에(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sup>2</sup> 와 스즈키 유코(여성사학자)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심포지엄 현장에서는 KBS 가 제작한 <침묵의 한>이라는 비디오와 재일한국민주여성회가 만든 <조선인종군위안부>라는 팸플릿이 판매되기도 했다.<sup>3</sup> “민족차별, 성차별, 전쟁 폭력”이 겹친 국가범죄로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내용이 토론회 최종 성명서에 담기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한국 내 위안부 문제제기와 조직화, 이에 자극받은 일본 여성과 재일조선인 여성 주도의 조직화가 있었다. 주지하듯, 1988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제주도 <여성과 관광> 국제세미나와 정신대연구위원회 설립,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내 정신대연구위원회의 일본 정부의 망언(일본 사회당 모토오카 쇼지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당시 노동성 직업안정국장 시미즈 쓰타오의 위안부 문제 부정 발언)에 항의하기 위한 기자회견(1990년 10월 17일) 개최와 대 일본 정부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 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조직화(1990년 11월 16일)가 있었다.

이에 충격 받은 일본 시민사회와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조직화도 거세게 일어난다.<sup>4</sup> 1990년 12월에 결성된 ‘매춘 문제와 싸우는 모임’은 <전쟁과 인권> 세미나를 주최해(1990년 11월 30일) 윤정옥 정대협 대표를 초대해 ‘위안부’ 문제에

<sup>1</sup>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실행위원회 엮음. 1991. 「국제 심포지엄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1회 보고서」, 29쪽;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20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151쪽.

<sup>2</sup> 다카하시 기쿠에는 1973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이우정)의 문제제기를 받아 야마구치 아키코와 함께 자비로 한국을 방문, 기생관광 실태를 보고 온 바 있으며, 1974년 본인이 사무국장으로서 있던 ‘매(賈)춘 문제에 대해 활동하는 모임’에서 “한국 여성들의 싸움에 연대해 기생관광에 반대하는 집회”를 ‘아시아의 여자들 모임’등 다른 단체와 공동개최한 바 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작가들의 작품이나 언론을 통해 접했을 뿐 아니라 교풍회의 <자애로慈愛寮>(탈성매매지원 시설—일종의 부녀복지 시설)에 거주하던 일본인 위안부가 있어 만난 경험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개최한 1988년 제주도 세미나에서 윤정옥의 발표로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고 1989년 윤정옥이 조사차 일본에 왔을 때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돌아가실 때까지 야마구치 아키코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헌신한다(이나영 구술 인터뷰 중).

<sup>3</sup> 같은 책, 150-152쪽.

<sup>4</sup> ‘매춘 문제와 싸우는 모임’, ‘아시아의 여인들’, ‘종군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 모임’, ‘일본 전후 책임을 확실히 하는 모임’ 등

관한 발표를 듣기도 한다.<sup>5</sup> 재일조선인 여성들은 일본 오키나와 거주 일본인 ‘위안부’ 배봉기를 돌보는 일과 추도식 주최, 1990년 6월 일본 노동성의 망언에 대한 10월 공개서한 보내기 등을 진행하던 중, 1990년 12월, 윤정옥(정대협 공동대표)의 일본 방문과 강연이 계기가 되어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 대응 단체 결성을 결심하게 된다. 1990년 12월 도쿄에서는 ‘윤정옥 교수와 함께 하는 재일동포여성회’가, 이후 ‘우리여성네트워크’ 등이 잇달아 결성된다. 재일조선인 여성들은 윤정옥이 <한겨레>에 게재한 ‘정신대 취재기(정신대 원혼 서린 발자취 취재기)’(1991년 1월 4일부터 4회기 연재)를 번역하고 재일 여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자료를 담은 팸플릿 <우리가 잊지 못하는 조선인 종군 위안부>를 발간하기도 했다.<sup>6</sup>

1986년 간사이 지역 재일조선인 여성들이 만든 ‘재일한국민주여성회’는 ‘여성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논하고 행동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1991년 1월, ‘종군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도 결성된다. 황보강자 등이 주축이었던 ‘재일한국민주여성회’는 윤정옥의 <한겨레> 연재문을 번역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1991년 5월 <은폐된 역사에 지금 빛을! 조선인종군위안부>를 발간한다.<sup>7</sup> 토론회 장소에서 판매되었던 바로 그 팸플릿이다.

간사이와 간토 지역 재일조선인 여성들은 김학순의 공개 증언 이후 1991년 12월 첫 번째 일본 공개 증언(간사이 지역과 간토 지역)을 개최했던 당사자들이기도 하며, 이후 일본의 ‘종군위안부 110번’ 신고전화 개설과 관련 자료집 발간(1992년), 송신도 할머니 재판 지원을 위한 ‘재일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을 주도적으로 결성(1993년 4월)하기도 하다.

한편, 토론회 직전인 1991년 5월 26일,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공개강연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윤정옥이 “정신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스즈키 유코가 “종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여성”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한다.<sup>8</sup>

1차 토론회의 인적 구성과 내용은 그러한 역사가 축적되고 자연스럽게 연결된 결과였다.

**제 2 차 서울토론회(1991년 11월 29일-30일)**에서는 북한의 김선옥의 발제에서 잠깐 언급되었을 뿐 ‘위안부’ 문제가 토론회에 전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

<sup>5</sup> 같은 책, 52-53쪽.

<sup>6</sup> 같은 책, 1장, 41쪽; 김부자, 2014, “일본 간토 지역의 여성 네트워크.” 같은 책, 269-270쪽.

<sup>7</sup> 방청자, 2014. “일본 간사이 지역의 재일한국민주여성회.” 같은 책, 281-282.

<sup>8</sup> 같은 책, 56쪽.

기자회견에서 일본 교토통신 기자의 질문에 시미즈 의원이 ‘정신대 피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회에서 정식 사죄하고 보상하라는 운동이 일본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sup>9</sup> 김학순 공개 증언 (1991년 8월 14일)과 정대협 신고전화 개설 직후임을 상기할 때 아이러니라 할 수 있으나, 한일 여성들 모두 증언의 파장과 피해 생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하던 시기임을 고려한다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하다. 실제 12월 초 김학순의 첫 번째 일본 정부 상대 소송과 일본 증언 집회가 있었으며, 재일조선인 여성들과 일본 여성들은 이에 대한 대응과 준비에 골몰하던 시기였다.

평양에서 열린 **제 3차 토론회(1992년 9월 1일-6일)**에는 ‘위안부’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기초발제를 맡은 시미즈 의원, 북측 토론자 최훈춘, 남측 토론자 윤정옥은 물론, 폐회식 고별성명에서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미경 부회장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긴급한 과제로 제시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었으며 재일조선인총연합회 대표단은 오키나와 배봉기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sup>10</sup> 이를 계기로 12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의 전후 보상에 관한 국제공청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국 여성들과 활동가들이 참여했으며, 남북한 피해생존자들의 직접적 만남이 이루어졌다. 남측의 강순애, 김학순, 황금주는 북측에서 참여한 김영실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한다.<sup>11</sup>

이러한 배경에는 토론회 직전에 열렸던 <아시아연대회의>가 있었다. <아시아연대회의> 1차 회의(1992년 8월 11일-12일, 서울)에 참여한 면면은 ‘토론회’ 참가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기독교부인교풍회의 다카하시 기쿠에, 시미즈 스미코 일본 사회당 참의원,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변호인단에 속했던 후쿠시마 미즈호 등이 발언했으며, ‘우리여성네트워크’,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조선인종군위안부를생각하는모임’에서 박윤남, 박미좌자, 고순남 등 재일조선인 여성들이 대거 참여했다. 북측은 도쿄에서 열린 2차 아시아연대회의(1993년)와 서울에서 열린 8차 회의(2007년)에 직접 참석했으며, 6차, 7차, 9차, 10차 등에도 문서로 참여한 바 있다.<sup>12</sup>

**제 4차 토론회(1993년 4월 23일-29일)**는 평양에서 합의한 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중심 주제였으며, 토론회에 앞서 남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복동과 북한 정문복의 증언이 있었다. 기초 발제자 이효재, 토론자 북한의 최금춘,

---

<sup>9</sup> 같은 책, 153쪽.

<sup>10</sup> 같은 책, 156쪽.

<sup>11</sup> 같은 책, 158-159쪽.

<sup>12</sup> 관련 내용은 정대협의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과 강정숙(2016)을 참고할 것. (강정숙, 2016. “일본군성노예제문제와 관련한 남북교류와 북측의 대응: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과 그 전후 움직임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24호.)

일본의 시미즈 의원 모두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원인과 실태, 해결의지를 다지는 발표를 하였다. 토론회 후 북측의 배민옥 부사장과 남측의 신혜수(정대협)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결과를 보고한다(1992년 3월, 이효재의 유엔본부 방문, 8월 제네바 유엔인권위 공식 발언 등).<sup>13</sup> 1992년부터 진행된 정대협의 유엔 활동과 곧 다가올 비엔나 인권대회 준비 과정이 배경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 3. ‘토론회’ 의미와 제언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는 4 차례 회의로 끝난 것이 아니다. 토론회를 주도했던 **한일, 남북한, 재일조선인 여성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으며 동아시아를 넘어 유엔 등 국제사회에 이 문제가 환기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세계 각지에서 남북한 여성들과 한일여성, 피해당사자들이 만나 연대를 다짐하고 활동을 확장해 왔다. 1992년부터 진행된 15 차례 아시아연대회의, 2000년 여성법정, 1992년부터 국제사회에 문제제기해 셀 수도 없는 유엔 권고안을 일궈내고 각국 의회 결의안들을 이끌어내며 국제인권 레짐을 변화시켜 왔다.

호미 바바(Bhabha 1994: 27)는 14 하이데거를 인용하면서 “경계란 무언가가 멈춰서는 곳이 아니라... 무언가가 현존을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그 유명한 저작 『문화의 위치(Location of Culture)』 서문을 연 바 있다.<sup>15</sup>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는 바로 그 경계를 질문하면서 출발했다. 서발턴 여성들은 그간 배제되고 침묵 당했던 자신들의 경험과 목소리로 경계에서 출발해 경계를 넘고 경계를 흔들며, 새로운 지형을 개척해 왔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전쟁을 비판하며, 여성이 주도하는 평화, 젠더가 부가적인 것으로 취급되거나 삭제되지 않는 인권을 세계사에 각인시켰다. 여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당사자들이 있었고, 활동가들이 있었으며, 연구자들이 있었다. 분단 냉전체제의 희생자로 머물지 않고 연구와 활동을 주도하며, 남북한은 물론 한일 간 적극적 가교 역할을 했던 재일조선인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이 던졌던 의제는 여전히 우리의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그 과정과 역사가 제대로 재조명되고 환기되지 않고, 그 정신이 제대로 계승되지 않는다면, ‘토론회’는 그저 특정 ‘시즌’에 가끔 등장하는 ‘전설의 고향’으로 남을 것이다.

---

<sup>13</sup> 같은 책, 157-158쪽.

<sup>14</sup> 바바, 호미, 1994,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나병철 옮김, 서울: 소명출판.

<sup>15</sup>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boundary is not that at which something stops but...the boundary is that from which *something begins its presence*”.

## Session 1: Discussion

### 30th Anniversary of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Achievements and Tasks Ahead

**Lee Na-young**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Chung-Ang University)  
Nov. 25, 2021, Seoul

#### 1. Introduction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1991-1993) (hereinafter the Seminars) represented a notable example of transnational women's solidarity that sought to cross borders of colonialism, ethnicity, ideology, division, and language. The Seminars, which took place between Tokyo, Seoul, and Pyongyang, aimed to build women-led solidarity for postcolonial peace. Women from the margins gathered amid post-Cold War and democratization contexts to move beyond intersecting oppressions of racism and sexism and realize agendas of human rights, peace, and gender equality.

Lee Hyunsook's presentation reminds us that we stand upon the foundation laid out by our seniors. I express my gratitude to our seniors who have shaped unimaginable hope into reality and showed us the possibilities of a different future with remarkable insights and drive. I am stunned once again by the fact that this happened more than 30 years ago. While concurring with most of the contents and significance of the Seminars as presented by Lee Hyunsook, my discussion will emphasize one chapter of history that must not be forgotten. Otherwise, the Seminars will be buried in the past and only the current significance will be highlighted, which may lead to unintentional distortions and fragmentations. Although the Seminars had only been held four times throughout a span of two years, the tasks women sought to address and their subsequent practice of solidarity had not stopped at a specific time and space but continued to expand and resonate with people. Today, I would like to share some of the processes and contents.

Most of the discussion below is based on *Han'gukchöngshindaedaech'aek'yöbüihoe 20nyönsa* [20 Years of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data I had collected since 2014 through oral history projects, and some of my previously published articles.

## 2.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s a Major Medium of Solidarity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as a major discussion agenda since the first seminar (May 31, 1991). Shimizu Sumiko, a member of the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Socialist Party), raised Japanese colonization and war responsibility and emphasized that “we need to stand together on agendas such a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sup>1)</sup> Lee Hyo-jae and Yun Chung-ok, co-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hereinafter The Korean Council) who held leading roles in the Seminars as South Korean representatives, explained results from “Along the Footsteps of the Chongshindae (‘Comfort women’)” investigation in detail. Japanese speakers Takahashi Kikue (KYOFUKAI, Japan Christian Women’s Organization)<sup>2)</sup> and Suzuki Yuko (Scholar on Women’s History) also centered their presenta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t the Seminars, copies of <Han[trauma] of Silence>, a video produced by KBS and <Korean “Comfort Women”>, pamphlet created by the Democratic Association of Korean Women in Japan were available for purchase.<sup>3)</sup> The final statement of the Seminar included a call for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state crimes that stand at the intersections of “racism, sexism, and wartime violence.”

Such developments at the Seminars were influenced by contexts in South Korea and Japan. In South Korea, awareness-raising and activism on the issue started in the 1980s. Japanese women and Zainichi women were inspired by the emerging activism in Korea and organized activism as well. In 1988, the Korean Church Women United held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Women and Tourism Culture” in Jeju and established the Research Committee for Chongshindae (‘Comfort Women’) Issue. The Korean Church Women United held a press conference on October 17, 1990, to protest the Japanese government’s ludicrous remarks (Director-General Shimizu Tadao of the Employment Security Office, Japanese Ministry of Labor denie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istory in response to questions asked by Councillor Shoji Motooka of Social Democratic Party at the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Budget Committee) and issued an open letter to the Japanese government. Organizations that participated in the press conference jointly established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on November 16, 1990.

Shocked by events that had unfolded in Korea, the Japanese civil society and Zainichi women also organized activism.<sup>4)</sup> “Association for Fighting Sexual Exploitation Issues,” formed in December 1990, invited Yun Chung-ok, co-representative of The Korean Council, to speak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t their <War and

Human Rights> Seminar on November 30, 1990.<sup>5)</sup> Zainichi women had been engaged in caring for Bae Bong-gi, a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an” who resided in Okinawa, organizing memorial services, and sending an open letter regarding the ludicrous remark made by the Japanese Ministry of Labor on June 1990. Inspired by Yun’s visit and lecture in Japan in December 1990, they decided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in Japan that can respon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December 1990, “Zainichi women in solidarity with Professor Yun Chung-ok” was formed in Tokyo, and Our Women Network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ereinafter Our Women Network) was established. Zainichi women also translated Yun’s “Report following the footsteps of the Chongshindae (‘Comfort women’)” (Series of four articles reported from January 4, 1991) released in The Hankyoreh and published a pamphlet titled <Korean “comfort women” that we cannot forget>, which included survey results and data about women residing in Japan.<sup>6)</sup>

The “Democratic Association of Korean Women in Japan,” established by Zainichi women living in the Kansai region, aimed to “discuss and take action towards democratization and reunification from women’s perspectives.” This organization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Thinking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January 1991. The Democratic Association of Korean Women in Japan, led by Hwang-bo Kang-ja, translated Yun’s report on The Hankyoreh and gathered data to publish <Light on silenced history! Korean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on May 1991.<sup>7)</sup> This was the pamphlet sold at the first Seminar.

Zainichi women in Kansai and Kanto regions held the first testimony rally in Japan (in Kansai and Kato regions) in December 1991 after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They also opened the “Comfort Women 110” Hotline in Japan, published relevant reports in 1992, and launched “Organization Supporting ‘Comfort Women’ Lawsuit in Japan” in April 1993 to support Song Sin-do’s lawsuit.

The Korean Council hosted an open lecture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Seoul on May 26, 1991, right before the first Seminar. In this open lecture, Yun delivered a lecture on “What is Wrong with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Suzuki Yuko of Japan delivered a lecture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Japanese Women.”<sup>8)</sup>

Such accumulation and connections in history shaped the contents and speakers of the first seminar.

In the **second Seminar in Seoul (November 29-30, 1991)**,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as not brought to the forefront of the Seminars. The issue was only briefly mentioned in the presentation by Kim Seon-ok of North Korea. However,

Shimizu Sumiko, a member of the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said the following in response to a question from a Kyodo News reporter: “a movement calling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apologize formally in the Diet and make reparations has been launched in Japan.”<sup>9)</sup> This might be read as ironic given that not much time had passed since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on August 14, 1991, and the Korean Council’s launch of the “Comfort Women” Hotline, but can be also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Korean and Japanese women having contemplated on the impact of testimonies and necessary support for victim-survivors. Zainichi women and Japanese women were occupied with preparing for and responding to Kim Hak-soon’s law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estimony rallies which all took place in early December of that year.

In the **third Seminar held in Pyongyang between September 1-6, 1992**,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as addressed as a major agenda. Japanese Diet member Shimizu Sumiko, Choi Hun-chun of North Korea, and Yun Chung-ok of South Korea who presented keynote speeches and Lee Mi-kyung, Vice President of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who delivered the farewell speech at the closing ceremony, had all proposed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s an imminent agenda. Notably, North Korean “comfort women” survivors testified and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delivered the news of Bae Bong-gi from Okinawa.<sup>10)</sup> On December 9,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and advocates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Public Hearing Concerning Post-War Compensation of Japan” in Tokyo, Japan. Survivors from North and South Korea were able to meet each other through this event — Kang Soon-ae, Kim Hak-soon, and Hwang Geum-joo of South Korea hugged Kim Young-shil of North Korea and broke into tears.<sup>11)</sup>

The <Asian Solidarity Conference>, which was held before the Seminar, shaped this context. Participants of the first <Asian Solidarity Conference> meeting, which was held in Seoul from August 11-12, 1992, were mostly attendees of the Seminars. Takahashi Kikue of KYOFUKAI, Japan Christian Women’s Organization, Shimizu Sumiko, a member of the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and Fukushima Mizuho, who was one of the lawyers in the lawsuit for damages filed by Korean Victims of Asia-Pacific War, spoke at the Conference. Many Zainichi women, including Park Yoon-nam, Park-Mi Jwa-ja, Ko Soon-nam of “Our Women Network,” “Democratic Association of Korean Women in Japan,” and “Organization Thinking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participated. North Korean delegates participated in person during the 2nd Asian Solidarity Conference held in Tokyo in 1993 and the 8th Asian Solidarity Conference held in Seoul in 2007, and sent documents for the 6th, 7th, 9th, and 10th Asian Solidarity Conference.<sup>12)</sup>

**The Fourth Seminar held between April 23-29, 1993** feature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s had been agreed in Pyongyang.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urvivor Kim Bok-dong of South Korea and Jung Moon-bok of North Korea testified before the Seminar. Keynote speakers Lee Hyo-jae and discussants Choi Geum-chun of North Korea and Shimizu Sumiko of Japan centered their presentations on the origins, investigations, and calls for resolu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fter the discussion, vice mayor Bae Min-ok of North Korea and Shin Hei-soo of South Korea (The Korean Council) reported on the results of their activities in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Lee Hyo-jae visited the UN headquarters on March 1992, and presented official remarks at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Geneva in August).<sup>13)</sup> Underlying the Seminars were the Korean Council’s activities in the UN since 1992 and preparations for the Vienna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 **3. The Significance of the Seminars and Concluding Remarks**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did not end with four meetings. **The Japanese, South Korean, North Korean, and Zainichi women** who led the Seminars raise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o the public, not just in East Asia but also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and tried their best to resolve the issue. North Korean, South Korean, and Japanese women and victims met each other, committed to continuing solidarity, and expanded their activities. They organized the Asian Solidarity Conference, which continued 15 times since 1992, and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Their awareness-raising activit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1992 led to countless UN recommendations and resolutions adopted by congresses in various countries. Through such work, these women have transforme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Homi Bhabha (1994: 27),<sup>14)</sup> in citing Heidegger, noted in the introduction of his famous book, *Location of Culture*, that “a boundary is not that at which something stops but...the boundary is that from which something begins its presence.”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started by interrogating those boundaries. Subaltern women have started from, crossed, and disrupted the boundaries, pioneering new landscapes through their voices and experiences of exclusion and silence. They criticized imperialism, colonialism, and war. In doing so, human rights norms that do not minimize or overlook women-led peace and gender have been engraved in world history.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urvivors, activists, and researchers stood together in this process. Zainichi women who were not reduced to victims of the post-

Cold War division but played major roles in research and activism, serving as a bridge between Korea and Japan, stood together as well. The agendas they have problematized remain an issue that needs to be resolved.

If that process and history are not given the proper attention, and the spirit is not properly inherited, the Seminars will remain as a “fairytale homeland” that only appears in certain “seasons.”

---

1)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Kukche shimp’ojiöm ashia p’yöngchwawa yösöngüi yök’al che1hoe pogosö* [Report of the 1st Seminar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Seoul, 1991), 29;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20 Year Anniversary Publishing Committee, *Han’gukchöngshindaedaech’aek’yöbüihoe 20nyönsa* [20 Years of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Seoul: Hanul, 2014), 151.

2) Takahashi Kikue visited Korea at her own expense with Yamaguchi Akiko upon an invitation from the Korean Church Women United (Lee Woo-jung). She witnessed kisaeng sex tourism in Korea during this visit. In 1974, as executive director of <Association for Fighting Sexual Exploitation Issues>, she co-organized “Rally against Sex Tourism in Solidarity with Korean Women’s Struggles” with other organizations such as <Association of Asian Women>. Furthermore, she had heard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rough books and media, and had encountered a Japanese “comfort woman” who resided in KYOFUKAI’s <chaeryo 慈愛寮> (shelter for women out of sexual exploitation industry - a type of welfare facility for women). She further learned about the issue from Yun Chung-ok’s presentation in the Korean Church Women United’s 1988 seminar at Jeju. Takahashi even hosted Yun at her house when Yun visited Japan for field investigation in 1989. She dedicated to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ith Yamaguchi Akiko until she passed away in 2020 (From oral history interview conducted by Lee Na-young).

3) Ibid, 150-152.

4) “Association for Fighting Sexual Exploitation Issues,” “Association of Asian Women,” “Association Demanding Responsibility fo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ssociation Clarifying Japan’s Post-War Responsibilities,” etc.

5) Ibid, 52-53.

6) Ibid., Chapter 1, 41; Puja Kim, 2014, “Women Network in Kanto, Japan.”; Ibid., 269-270.

7) Chung-ja Pang, 2014. “Democratic Association of Korean Women in Japan in Kansai, Japan.”; Ibid., 281-282.

8) Ibid., 56.

9) Ibid., 153.

10) Ibid., 156.

11) Ibid., 158-159.

12) For more information, see proceedings of the Asian Solidarity Conference and Kang (2016). (Jeong-Sook Kang, 2016, *Ilbon’günsöngnoyemunjewa kwallyöghan nambukkyoryuwa pukch’ügüi taeüng: <2000nyönilbon’günsöngnoyjönbömyösönggukcheböpchöng>kwa kü chönhu umjigimül chungshimüro* [The Responses of North Korea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Yösönggwa yöksa*, 24. 139-185.)

13) Ibid., 157-158.

14) Homi Bhabha,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Translated by Na Byung-chul, Seoul: Somyöngch’ulp’an.

세션 1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년, 성과와 과제

토론 : 이문숙(전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총무)

2021.11.25. 서울

1. 제 2 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아평여) 서울토론회 첫날 회의대표들을 환영하기 위해 300 명의 여성들이 올림피아 호텔 2 층 임페리얼홀에 모였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불가능해 보인 일이 눈앞에 펼쳐진 데 대한 감격과, 장차 이 사태가 어디로 흘러갈 지에 대한 긴장과 호기심이 장내를 달구었던 그 시간이 떠오른다. 네 번의 토론회가 남긴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에 대해 접했지만, 대부분 전해들은 그것들은 내가 직접 목격한 서울 토론회의 광경만큼 압도적이지 않다. 직접적인 접촉의 의미가 그만큼 큰 것일까.

이현숙 선생님이 전해 주시는 <아시아 평화와 여성 역할>(아평여) 토론회 역사는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들으니, 전율이 오고 힘이 솟는다. 다시금 감동이 살아나도록 생생하게 이야기해주신 이 선생님에게 감사한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여성들에겐 자긍심과 용기와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편, 1990년대까지의 우리 사회를 겪지 못했거나 남북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떤 감흥을 줄지 궁금하다.

2. 이현숙 선생님은 여성 외교의 결실, 분단 이후 최초로 DMZ 를 가로지른 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만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과제 채택, 협력과 연대의 틀을 만든 일, 남북 양자 교류의 디딤돌을 놓은 일 등을 토론회 성과로 꼽았다. 평양토론회 보고회에서 이우정선생은 그간의 토론회들에 대해, 1 차 도쿄토론회는 서로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한 암중모색의 단계, 서울의 2 차는 조금씩 마음을 여는 단계, 3 차 평양 만남은 서로 신뢰하고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본격적인 교류의 단계로 평가했다. 하지만, 탈냉전의 진행, 시민사회운동의 발전과 여성운동의 성장,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라는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이데올로기와 군사적 장벽을 넘어 이룬 ‘만남들’이 무르익어갈 때 더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나타났다. 미국과 관계개선을 모색하던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1993년 3월 11일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하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내놓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북미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포괄적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남한 정부의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 할 수 없다”는 이른바 핵 연계 남북 정책 선언으로 남북관계는 악화했다. 따라서 ‘아평여’의 길도 막혔다.

남북민간교류를 시작한 이래 남북, 북미 간 정세가 여성 교류는 물론 다양한 영역의 민간교류의 향배를 좌우하는 일은 당연한 공식이 되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정세변화에 따른 한계를 돌파하고, 협력과 연대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류를 이어가려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2000년대의 남북여성교류, 여성 6자회담 구상과 준비, 동북아 평화 토론회 등은 ‘아평여’의 무모함에 가까운 도전의 계승이면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여성평화운동의 한 줄기를 형성해 왔다.

3. 과제와 관련해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한다.

### 1) 아시아 그리고 더 많은 여성주의와 함께 WPS 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간 6자 회담의 지리멸렬함에 실망한 여성들은, UNSCR 1325 정신으로 동북아여성들의 6자회담 준비하고,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이어가면서 힘을 겨루다 교착상태에 빠지곤 하는 정부들에게 갈등을 평화롭게 풀 것을 촉구해왔다. 이 여정에 북한 여성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현숙선생이 제안한, 유엔 안보리 1325 결의안 실현을 위한 ‘동북아 WPS 여성네트워크구축’은 여성들이 지금까지 해온 누적된 활동의 새로운 포맷으로서 동북아 공동체의 평화를 향한 행보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여성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1325 결의안의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북의 여성들이 ‘네트워크’에 기후변화, 여성의 경제 등 당면한 문제들을 고리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작금의 신 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이 동북아 안전과 평화를 더욱 위협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경계를 넘어 새로운 평화 건설자로서 새 질서를 구축해 가야 한다.

한 가지 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가 지금 3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 명칭은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이 모임의 주체였던 평화운동의 선배들의 눈은 ‘동북아’가 아니라 식민지배 역사를 공유한 ‘아시아’ 전체를 내다보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토론은 ‘동북아’ 문제에 집중되었다. 김윤옥 선생님이 이 교류의 어려움으로 ‘주제의 반복에서 오는 지루함’을 들었는데, 이는 선생이 또다른 어려움으로 언급한 ‘남북 체제가 주는 압력’으로 인한 ‘발언의 한계’와도 연결된 피치 못할 문제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현재의 눈으로 보면, 토론회가 남-북-일본이라는 지정학적 상황에 매인 것도 다른 의제를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일본교회협의회(NCCJ)의

여성들이 1996 년부터 격년으로 최근까지 ‘동북아 평화(화해)’을 위한 교회 여성의 역할’ 회의를 열어 왔는데, 의식해야 할 누군가의 압력이 없는데도 토론 의제를 확장하지 못한 것에서도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아시아 여성들은 안전과 평화를 위협받는 공통의 혹은 개별의 문제들을 안고 씨름하고 있다. 공통의 문제를 교류의 기반으로 삼는 것은 상식이지만, 다른 시각, 다른 경험의 융합에서 화학적 변화 같은 뜻밖의 결과를 본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제 ‘동북아’에서 ‘아시아’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이질적인 관심사들과 운동방식들과 마주치면서 의제 확대와 더불어 창조적인 여성평화운동을 열어가면 어떨지. (최근에 개발 NGO 캠프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글로벌 여성평화 ODA(공적개발협력)활성화 연속 세미나’에서 그 가능성을 본다)

우리사회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그들의 활발한 활동에 ‘아평여’의 맥을 잇는 한반도/동북아평화를 위한 여성운동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평여’식의 평화운동이 군사주의의 쌍생아 같은 민족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그것이 ‘통일’운동과 결합돼 있다는 점이, 그들이 이 운동에 거리를 두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군사주의나 군사화를 분석하면서 탈분단이나 통일운동의 필요성으로 결론이 귀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권인숙, <민화협 여성위 2007 대토론회 자료집> 성별, 민족, 인종의 경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 소수자를 억압하는 장벽을 해체하기를 원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은 곧 평화운동의 추진력일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여성주의와 여성주의자들이 각각의 관점과 경험을 나누며 여성평화운동을 풍성하게 했으면 한다. 내게 UNSCR 1325 는 바로 그런 운동의 작동 원리로 보인다. 1325 의제들은 여성주의자들이 동의할 젠더 관점에서 설계되어 있고, 다양한 젠더 이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

## 2) 경계인, 주변인과 함께

한국에는 북한이탈주민이 3 만여 명(여성 72.0%)이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이주민이 200 만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특히 북이탈 주민에게는 정치적 문제나 가난 때문에 온 사람이라는 일률적인 정체성을 부여하고 보호하거나 멀리할 대상으로 차별해왔다. 북한 이탈주민 최신아씨는 북에서 예술단 감독을 지냈으나 친척 방문차 중국에 갔다가 한국 방송 보고 ‘남한에서 소질 발휘하고 싶어’ 탈북했다. 나는 최씨를 통해 이렇게 경쾌하게 경계를 넘어온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그의 고난은 여느 탈북민과 다르지 않았으나, 지금은 무용단을 조직해 발레, 한국춤, 안무, 연기, 연출을 모두 전문적인 수준에서 섭렵해야 하는 북한 무용수로서의 자긍심으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말을 들으면, 남북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 풍성한 예술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에서 여성학 박사가 되었고 서울시 부시장으로 더 일한 이해응씨는 한국과 중국이 축구 경기를 할 때 '어느 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냐'고 물으면 '둘 다 이기면 좋겠다'고 말한다고 한다. 북이탈 주민 최신아씨에게 남북이 겨루는 경기에서 누가 이겼으면 좋겠냐고 물으면 역시 '둘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탈북민을 포함한 이주민들이 바라는, '둘 다 이기는' 것은 평화의 길을 가리키고 있다. 둘 다 이겨야 경계와 주변의 삶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다. 민주화 인권 통일 운동에서 해외 디아스포라 한국인의 기여가 상당했던 것을 우리는 안다. 오늘의 재외 한국인 그리고 우리 내부의 경계인들이 자신의 위태한 삶의 자리에서, 차이 때문에 겪는 고난과 슬픔에서 길어 올린 일상의 바람들은 한반도, 동북아, 아시아, 세계 평화 만들기 위한 동력과 상상력의 원천으로 삼을 만하다. 여성평화운동은 우리 안의 이주민을 적극 초대해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삶을 더불어 해쳐 나갔으면 한다.

4. 이현숙 선생님은 '아평여'를 주도한 이우정 선생님을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으로 평가했다. 지금의 정부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회로 4.17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을 때도 같은 비유가 회자되었다. 성서에 열두 해 동안 혈루증 앓다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성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예수 옷자락을 손을 댄 후 병을 완전히 고쳤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분단병과 그로 인한 갖가지 후유증을 여전히 앓고 있다. 결국 정치 사회 지도자들의 힘만으로는 안되며, 주변과 저변으로 깊어지고 넓어져야 치유를 향한 평화의 배를 온전히 띄울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북한을 방문해본 사람들, 남북교류를 통해 말 한마디라도 나눠본 사람들이 남북문제에 대해 새삼스럽게 관심을 두는 경우를 많이 봤다. 남북 동북아 아시아 여성시민들의 드넓은 삶의 교류, 특히 직접적인 만남의 장을 넓히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 Session 1: Discussion

### 30th Anniversary of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Achievements and Tasks Ahead

**Lee Moonsook**

(Former Executive Secretary for Asian Church Women’s Conference, ROK)

Nov. 25, 2021, Seoul

1. I was present at the gathering of 300 women at the Imperial Hall, located on the 2nd floor of Olympia hotel, to welcome delegates on the first day of the 2nd Seminar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I remember being excited about witnessing what seemed impossible. Tensions and curiosities about where this would lead to had filled the room. While I had heard of various incidents and stories about the four seminars, I did not find them as remarkable as moments from the Seoul symposium, which I had witnessed myself. Direct witnessing seems to leave a big impression.

While I am familiar with the history of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hereinafter the Seminars) that Lee Hyunsook had recounted, I am thrilled and energized to hear it again. I would like to thank Ms. Lee for recounting the Seminars vividly. The stories will inspire pride, courage, and inspiration for women who work for peace. On the other hand, I wonder what impression this story would leave in people who have not experienced Korean society up to the 1990s or those who are not interested in inter-Korean issues.

2. Lee Hyunsook cited the fruition of women's diplomacy, the crossing of DMZ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division, the encounter of capitalism and socialism, the adoption of the joint task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e creation of a framework for cooperation and solidarity, and the laying of a stepping stone for bilate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as achievements of the Seminars. At the Pyongyang Symposium, Lee Woo-jung evaluated the 1st Seminar in Tokyo as a dark stage where people were figuring out each other's intentions, the 2nd Seminar in Seoul as a stage where people opened their minds little by little, and the 3rd Seminar in Pyongyang as a stage of trust and exchange that sought problem-solving. The post-Cold War context,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movements, growth of women’s movement, and Roh Tae-

woo administration's pro-North policy enabled encounters that trespassed ideologies and military borders. However, obstacles that prevented encounters from developing further emerged just as the Seminars were ripening with fruitful relationship-building. On March 11, 1993, North Korea declared its intent to withdraw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as a way to attract U.S. attention and improve U.S.-North Korea relations. This tactic led to high-level talks for comprehensive negotiations on resolving nuclear issues and normalizing the U.S.-North Korea relations, as North Korea had hoped for.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pposed the negotiations, remarking "we cannot shake hands with those with nuclear weap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sued a nuclear-linked inter-Korean policy and inter-Korean relations worsened. Therefore, the road to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was also blocked. The Seminars could no longer continue.

Since the start of inter-Korean civilian exchanges, the geopolitics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determined the direction of civil and women's exchange. Nevertheless, women made great efforts to break through the limitations imposed by political changes and continue exchanges by using the framework of cooperation and solidarity. The inter-Korean women's exchanges, plans for women's six-party talks, and East Asia Peace Symposiums of the 2000s were legacies of and responses to the bold adventures of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These events have formed a branch of the women's peace movement.

3. I will share two points in regards to the tasks ahead.

### **1) WPS with Asia and diverse feminisms**

Disappointed by the disjointed six-party talk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omen urged governments to peacefully resolve the conflict. In the spirit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hereinafter UNSCR 1325), women prepared six-party talks featuring East Asian women and continued the "Northeast Asian Women's Peace Conference." Lee Hyunsook's proposed "East Asia WPS Women's Network" for UNSCR 1325 could serve as a breakthrough in the path towards peace for the East Asian community as a new form that builds on the activities women have organized thus far.

I hope that North Korea, a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establish a national action plan for UNSCR 1325 to ensure women's peace and security. Such a national action plan would enable North Korean women to participate in the East Asia WPS Women's Network to address imminent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women's economy. With the U.S.-China conflict heightening into a new Cold War that threatens East Asian security and peace, women should cross

boundaries and establish a new order as new peacemakers.

I would like to call attention to the fact that our 30th-anniversary seminar is titled “Peace in Asia and the Role of Women.” The organizers of the Seminars had looked towards “Asia” as a whole, not just “East Asia,” but the discussion has been focused on East Asian issues. Kim Yoon-ok cited “boredom from repetition of the same topic” as a challenge in this exchange, which might have been an inevitable problem linked to the “limitations of what can be said” due to “pressures from the system of North-South division.” In addition, the Seminars being tied to the geopolitics of North Korea-South Korea-Japan may have hindered the development of other agendas. Women from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CK) and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Japan (NCCJ) held meetings on “The Role of Church Women for East Asian Peace(Reconciliation)” every other year since 1996. Lessons should be learned from the failure to expand discussion agendas despite the lack of external pressure.

Asian women struggle with common or individual problems that threaten safety and peace. While using common problems as the basis for exchange is common practice, the convergence of different perspectives and different experiences can also lead to noteworthy unexpected results. What if we expanded our network beyond “East Asia” to “Asia” and encountered heterogeneous interests and movements to expand our discussion agendas and open up a creative women’s peace movement? (I see possibilities for this in the ‘Seminars on the Revitalization of Global Women Peace ODA’ co-organized by Camp International and Women Making Peace.)

Many feminists in Korean society do not include the Seminars and the subsequent women’s movement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in their activism. Although the Peace movement of the Seminars is not based on nationalism, which is tied to militarism, the fact that it is connected to the unification movement seems to be why feminists have distanced themselves from this movement. This is because “feminist analysis of militarism or militarization in the Korean society did not conclude on the need for post-division or unification movement” (Kwon In-sook, <Proceedings of the 2007 Symposium of the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omen’s Committee>). Feminist perspectives that dismantle borders of gender, ethnicity, and race and barriers that oppress the marginalized can become the driving force for the peace movement. As such, I hope more feminists would enrich the women’s peace movement by sharing their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To me, UNSCR 1325 seems to be able to serve as the principle of such a movement. UNSCR 1325 agendas are built upon gender-based perspectives that feminists would agree on, and can be applied to various gender issues.

## **2) With neighbors and those on the border**

Korea is home to approximately 30,000 North Korean defectors (72.0% women) and 2 million immigrants from other countries. However, these immigrants, especially North Korean defectors,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as subjects of protection or othering, depicted under a uniform stereotype of poor people ridden with political problems. Choi Shin-ah, a North Korean defector, was a director of an art group in North Korea. She fled after watching a South Korean broadcast during her visit to a relative in China. I learned through Choi that some people had crossed the border positively. The challenges she faced until settling in Korea were no different from other North Korean defectors. Nevertheless, she is now leading a dance company and teaching juniors with pride as a North Korean dancer with expertise in ballet, Korean dance, choreography, acting, and directing. When I listen to Choi, I cannot help but think that a more robust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could lead to the development of rich art culture.

When asked whether she wants Korea or China to win in a soccer match, Lee Hae-eung, an ethnic Korean from China who earned her Ph.D. in Women's Studies in Korea and held the honorary vice mayor of Seoul position, responds by saying, "I want both of them to win." If asked the same question regarding a North Korea-South Korea soccer match, Choi Shin-ah, the North Korean defector, might also respond the same.

The response of migrants, including North Korean defectors, who live on the margins of our society point towards a path for peace. Only when both sides win would lives on the margins be safe and peaceful. We know that the contributions of the Korean diaspora in democracy and human rights movements had been significant. The mundane hopes of overseas Koreans and the marginalized in Korea in their precarious positionalities and hardships faced due to differences can become sources of motivation and imagination for peacemaking in the Korean peninsula, East Asia, Asia, and the world. The women's peace movement should actively invite immigrants and work through uncertain lives together.

4. Lee Hyunsook depicted Lee Woo-jung as having caught God's coattails as he marched through history. The same analogy was discussed when the current administration successfully held the April 17th North Korea-South Korea summit in light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the Bible, there is a story of a woman who suffered from hemolysis for 12 years. She was completely cured after touching the coattails of Jesus' clothes. However, we still suffer from division and subsequent trauma. The power of political and social leaders cannot resolve this issue. Only when we deepen and expand to borders and margins would we be able to sail the ship for peace and healing.

I have witnessed how people who have visited North Korea or engaged in conversations during inter-Korean exchanges show more interest in inter-Korean issues. This is why it is important to expand spaces for exchange, especially direct contact, among women from North and South Korea, East Asia, and Asia.

세션 1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년, 성과와 과제

토론 : 이시이 마야코(전 일본YWCA 회장)

2021.11.25. 서울

오늘 국제토론회에서 이렇게 저명한 분들과 함께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1991년 제1회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에서 일본의 YWCA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책무를 인식하며 도쿄의 주최자 중 하나로 참가하였습니다. 일본의 여성운동으로서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전과 도중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화를 막지 못했으며 전쟁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유감 속 우리는 전쟁과 군대를 포기한 일본 헌법을 지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식민지배가 오늘날에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 토론에서는 이현숙님이 발표에서 공유한 추후 과제에 덧붙여 몇 가지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1.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을 포기하고 군사력 증강을 중단합니다.**

일본 YWCA와 한국 YWCA는 2015년 제28차 세계 YWCA 연합회에서 채택된 핵에너지 및 무기 동등 거부에 대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일본 YWCA는 또한 일본 정부에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일본 YWCA 회원들은 1970년대의 "반핵 자세"를 기반으로 한 활동들을 강조해왔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번영만을 추구하고 지구를 무시하는 현대 문명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고의 틀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 과정에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원자력 발전은 희망적이고 평화로운 핵 사용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YWCA 회원들은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 초 냉전체제가 종식된 후, 평화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단과 가난, 전쟁 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YWCA 회원들은 어떻게 하면 차별과 빈곤을 근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왔습니다.

## 2.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실현합시다.

서울중앙지방법원<sup>16</sup>은 일본 정부가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종류의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후자의 판결은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 면제를 이유로 청구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1993년, 미야자와 내각의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아시아 여성 기금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비정부 기금이었기에 많은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12월, 아베 일본 총리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합의했지만, 2018년 11월에 해당 재단은 해산되었습니다.

2018년 가을,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했던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다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로 일어난 심리적, 물리적 고통에 대해 일본 회사들이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의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1965년 한일협정에 포함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법원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는 위 협정에 대한 해석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병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009년 일본 YWCA 전국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대한 사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아시아의 파트너들, 각국 YWCA 등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3.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와 생명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역사교육을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베 2차 내각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역사 문제에 대한 교섭을 시도했지만, 동시에 내각의 결정 하에 일본 정부의 아시아 침략 역사를 숨기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기술을 삭제하고 “위안

---

<sup>16</sup> 번역자의 주: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34민사부, 재판장 김정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21일 피해자들이 제기한 또 하나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재판장 민성철은 국가 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로 표기하라고 했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므로, 일본군의 관여를 나타내는 “종군”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중요 공문서를 파기, 위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민주주의 정책의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평화와 생명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역사교육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의 의미는 이러한 협력에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여정을 걸어난 모든 여성에게 존경을 표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 Session 1: Discussion

### 30th Anniversary of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Achievements and Tasks Ahead

**Mayako Ishii**(Former President of YWCA of Japan)  
Nov. 25, 2021, Seoul

It is my honor to be presenting at this seminar today with such distinguished speakers.

When the 1st Seminar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in 1991, the YWCA of Japan took part as one of the organizers in Tokyo, with a strong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y that we bear towards peace in Asia. As a women's movement in Japan, we hold a deep regret that we were not only unable to stop the Japanese aggression and colonization before and during the Asia Pacific War but were also obliged to collaborate in the war. This regret made us resolve to uphold the Constitution of Japan that renounces war and military. With the consequence of the Japanese colonization still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as of today, it continues to be our utmost wish to do all we can for the realization of peace. In my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share some remarks adding to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hared in Ms. Le Hyun Sook's speech.

#### **1. Let us abandon nuclear weapons and atomic power generation and stop the struggle for military expansion.**

The YWCA of Japan and the National YWCA of Korea jointly proposed a resolution on "Equal Denial of Nuclear Energy and Weapons", which was adopted at the 28th World YWCA Council in 2015. The YWCA of Japan has also actively called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sign and ratify the Treaty of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ts members have put emphasis on the activities based on the thought of "Assuming an Anti-Nuclear Stance" from the 1970's. It is a kind of thought movement to put a question to the contemporary civilization in which people only ask for their own benefit and prosperity, ignoring themselves and the nature of the earth. In the course of this movement, we naturally arrived to criticize the atomic power generation. At that time, the atomic power generation was highly praised as hopeful and peaceful way of atomic use by the most people. Thus the members of YWCA of Japan were criticized as the people unable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of atomic bombs and atomic power generation.

After the cold war of eastern and western world ended early in the 1990s, despite the expectation of the arrival of the peaceful world, most of the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been scared by the new crises of war under the new division and poverty. We YWCA members have been thinking about how we can advance toward the eradication of

discrimination and poverty.

## **2. Let us bring justice to victims of forme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o called 'comfort women') and those forcible drafted as laborers.**

Although the Seoul Court passed the judgemen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pay the damages, the same court rejected the same kind of the case. The latter judgement explained the reason of rejection that the court could not judge the governments of other nations.

In 1993, the Chief Secretary of Miyazawa Cabinet, Yohei Kono, made a speech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pologized to the victims of forme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However, the following activities of the Asian Women's Fund which sent nongovernmental money was not accepted by many of the victims, since it was considered not adequately addressing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ibility.

In December 2015, Japanese Prime Minister Abe and Korean President Park Guen-hye agreed on the establishment of a "Reconciliation and Healing Foundation", which was, however, dissolved in November 2018.

In the autumn 2018, the Supreme Court of Korea passed judgement on the case of the former drafted laborers employed by the Japanese two enterprises, the Nippon Steel and the Mitsubishi Heavy Industries, that these laborers should be paid the damages. Later in June 2021, however, the Local Court of Seoul rejected the lawsuit by the former drafted laborers who claimed the damages.

The former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rdered these Japanese enterprises to pay the damages to plaintiffs for the mental and physical pains caused by the illegal colonial dominance, regarding the damages of the drafted laborers was not included in the Agreement of the Fund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made in 1965.

But the later judgement of the Local Court concluded that the claim of plaintiffs had been completely settled because the damages of the drafted laborers were included in the above-mentioned Agreement. In addition, the Local Court stated that whether the colonial dominance of Korea by Japan was legal or illegal has nothing to do with interpretation of the above-mentioned Agreement.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was absolutely unjust, and Japan's responsibility must be fully addressed. As stated in "The Apology for the Asia-Pacific War, and the Resolution for Commitment to World Peace" adopted at the YWCA of Japan National Convention in 2009, we are determined to continue taking action and work with YWCAs and partners in Asian countries to realize this.

## **3. Let us develop the Education of History which teach our children the importance of Peace and Life.**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s since the second Cabinet of Prime Minister Abe took a compromising attitude attempted negotiation with Korean government toward historical affairs, they have tried to conceal the history of aggress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on Asian countries by the decision of the cabinet. For exampl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ordered the authorized publishing companies to delete the word "Jugun ('military' in Japanese)" from the expression of **Jugun Ianfu (military comfort women) in school textbooks**. As it is essential for the textbooks of history to express the facts correctly, it should not be permitted to delete the "military", because the meaning of which is participation of the military authorities.

Recently Japanese government has often destroyed or falsified the important official documents. It means the breakdown of the basis of the democratic policy of Japan. It is our duty to improve such a situation and develop the education of history which teaches our children the importance of Peace and Life, based on the reliable data and documents.

Lastly, in order to tackle the situations and challenges I mentioned, it is crucial that women play active roles and work together beyond regions and countries. The significance of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the Role of Women lies in this collaboration. With deep respect to all women who have realized this historical step, I believe we can continue to build on this joint effort towards a peaceful world.

세션 1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년, 성과와 과제**

토론 : 패티 텔벗(캐나다 연합교회)

2021.11.25. 서울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에 참석해 이현숙 발표자의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개최 3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토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현숙 발표자가 “현해탄 너머로, DMZ 너머로 화해와 평화의 다리를 놓고자 했던 토론회 주역들의 이상과 열정은 이제 우리 영감의 원천이며 우리 발길을 이끄는 북극성이 되었다”라고 적으며 원고를 마무리한 부분에서 저의 토론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리 영감의 원천이며 우리 발길을 이끄는 북극성”이 된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인도하는 빛을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 동아시아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존엄과 삶을 위한 세계 연대를 위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성경에는 “평화를 만드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성경은 “평화를 말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특히 여성들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존중과 상호성의 관계를 세심하게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91년 서울에서 열린 2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에서는 남북한 여성들이 해방 후 처음으로 한국 땅에 모였습니다. 이현숙은 발표문에서 수십 년의 분단으로 인해 상호 이해에 큰 격차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가 “토론을 달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상처와 고통 후에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토론 회에서는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 "여성과 평화 정착"에 대해 여성들 사이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뜻 깊은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모인 여성들이 날카로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경청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토론 뿐만 아니라 대화와 차를 나누며 함께했습니다.

분단 이후 수십 년 동안,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는 적대감과 분단을 넘어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려는 한국인들의 의지와 결단에 연대하기 위해 남북한 한국인들이 함께 만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여기에 앞장섰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캐나다연합교회에서는 남북한 여성들의 만남을 주최할 수 있도록 한국 파트너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여성들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 첫 결실은 2001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북한 조선기독교총연합회를 대표하는 여성들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대표하는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연대하는 여성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2004년 토론토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여성들의 참가가 어려워지자,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남한과 캐나다의 45명의 여성이 "한국의 여성과 평화 건설"이라는 주제 아래에 함께 모였습니다. 목표는 캐나다 여성들과 남북한의 여성들 사이에 문화적 연결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화구축을 위한 협력 방법을 찾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다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의 틀을 사용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고 분쟁 방지와 평화 안보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과정에서 여성의 기술과 공헌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2004년 토론토에서 열린 모임의 발표자 중 두 분이 오늘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당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였던 이현숙님은 "적을 형제자매로 바꾸기"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또 당시 교회여성 평화연대운동 총무였던 이문숙 목사는 "평화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모임은 2019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다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세계 에큐메니칼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남북한의 기독교 여성들을 모으기로 계획했습니다. 3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연대하는 여성 국제회의는 "분단의 벽은 허물어진다: 한반도의 여성, 화해, 평화"라는 주제 아래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에도 불구하고, 회의와 남북 여성들 간의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를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평화와 화해를 현실이 아닌 미래 과제로 남겨두려 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네 차례 성사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와 캐나다에서의 성사되고, 좌절된 모임들은 관계를 형성하는 만남이었을 뿐 아니라 평화를 구축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회의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현숙 발표자가 제안한 남북 여성의 공동과제 모색, '동북아 WPS 여성네트워크' 구축, 협력과 연대의 동북아 다자협력체제 구축의 향후 과제는 중요하며 관심과 자원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캐나다연합교회와 세계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은 단순한 파트너나 지지자 이상으로 한국 여성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와 모든 창조물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위해 나아가는 과감한 여정을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4차례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남긴 유산은 앞으로의 여정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젠더 기반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이 평화 과정에 포함되는 곳에서는 평화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 인간과 모든 창조물이 한 몸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모두를 위한 생명의 총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추구한다고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멸종 위기에 처한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한 몸으로, 가족으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한민족 간 화해와 평화로운 공존과 궁극적인 통일을 향한 길에는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의 동의와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외부 세력은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인들의 운명을 통제해왔습니다. 이러한 통제의 방식은 전쟁, 식민지배, 분단, 그리고 한국인의 열망보다는 강대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에서는 평화 공존과 궁극적인 통일의 그 날을 향해 한국 파트너들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여성들이 분열되고 있는 현 세계에 화해와 평화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듣고 배우며 서로를 마주하고, 함께 두려움, 분노, 갈등에 맞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용기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Session 1: Discussion

### 30th Anniversary of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Achievements and Tasks Ahead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Nov. 25, 2021, Seoul

It is an honour to participate in this 2021 International Seminar on Peace in Asia and the Role of Women and to respond briefly to Lee Hyunsook's analysis and reflections on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Achievements and Tasks Ahead.

I start where Lee Hyunsook concluded, with her comment that *"The idealism and passion of the organizers who wanted to build a bridge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beyond the DMZ and the Korea Strait have now become the source of our inspiration and the North Star that leads us."*

Honouring those sisters who "have now become the source of our inspiration and the North Star that leads us" means remembering their witness and evoking their guiding light today, as we move with hope and courage to nurture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with justice in East Asia and global solidarity for dignity and life.

The Christian scriptures tell us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They don't say "Blessed are the peacetalkers." We all know that peace does not just happen. Peace is made. All of us know – women most of all -- that for *making* peace, it is fundamentally important to carefully nurture relationships of respect and mutuality.

At the 2nd Seminar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in Seoul in 1991, women of North and South Korea gathered on Korean soil itself for the first time after liberation. Lee Hyunsook tells us that there were significant gaps in mutual understanding due to the decades of separation.

She notes that there were "heated discussions". That is no surprise! Women know that building relationships of trust after brokenness and pain takes time. Despite the challenges, we know this seminar included in-depth discussions among women on "patriarchal culture and women", "wo

men's role in reunification", "women and peacemaking." These meaningful exchanges happened because the women who gathered were determined to listen deeply to each other, to communicate and collaborate in spite of sharp differences. They were committed to being together, sharing dialogue and tea as well as debate.

In the decades since the division of Korea, one way the global ecumenical family attempted to be in solidarity with the will and determination of the Korean people to move from hostility and separation towards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has been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Koreans from North and South to meet together.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has done this. The United Church of Canada, which I represent, has supported Korean partners to host encounters for women from North and South, so that Korean women have their own space for relationship-building. This first happened in 2001, when women representing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from the DPRK and women representing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from the ROK gathered in Toronto, Canada. The title of that consultation was "Women in Solidarity for Peace and the Reunification of Korea".

A second consultation was planned for 2004, also in Toronto. When it became clear that North Korean women would not be able to travel, plans were adapted. Forty-five women from South Korea and Canada came together under the theme "Women and Peacebuilding in Korea." The goal was to build cultural linkages and networks between Canadian women and counterparts in South and North Korea, identify avenues for collaboration in peacebuilding and develop strategies to achieve these. The gathering used the framework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which affirmed the role of women in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building, to "facilitate dialogue and debate on issues surrounding peace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refore harness the untapped skills and contributions of women for processes of conflict prevention and the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peace and security". Two of the presentations at that 2004 gathering in Toronto were made by women peacemakers with us today. Lee Hyunsook, who was at the time Executive Director of Women Making Peace presented on "Transforming the Enemy into Brothers and Sisters". Rev. Lee Moon-Sook, at the time Coordinator of Church Women Peace Solidarity Movement, made a presentation entitled "The Role of Women in the Peace Movement".

A third consultation was planned for 2019, to be held once again in Toronto, Canada. The plan was to gather Christian women from North and South Korea, supported by global ecumenical partners. This "3rd International Ecumenical Consultation of Women in Solidarity for Peace and the Reunification of Korea" proposed the theme "Walls that divide are broken

down: Women, Reconcili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the best-laid plans, the conference and the planned exchange and encounter among women from North and South did not happen, as women peacemakers were once again subject to the geopolitics of the region that continue to divide the peninsula, and keep peace and reconciliation a destination rather than reality.

The four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that happened between 1991 and 1993 and these encounters – and thwarted encounters -- in Canada were not only relationship-building gatherings but peace-building encounters. We need more like these today, for the path to authentic peace anywhere needs empowered women.

The "Tasks Ahead" laid out by Lee Hyunsook, are essential and deserve attention and resources: Finding joint tasks for women from South and North Korea; Establishing an East Asia Women Peace and Security Women's Network; and Build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in East Asia based on cooperation and solidarity. In those goals,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nd other partners in the global ecumenical family, stand with Korean sisters as more than partners, or even allies. We stand ready to be "accomplices" in the daring journey ahead toward the transformation so needed by humanity and all creation. Part of the legacy of the four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is to ensure that women's leadership and a gender-based analysis is part of the journey ahead. We know that "Where women are included in peace processes, peace is more enduring."

Christians believe that we humans and all creation are members of *one body*, bearing one another's burdens and seeking together God's gift of fullness of life for all. More than ever before, this fragile and endangered planet needs us to be and act as one body, as *family*. We know too that reconciliation among the people of Korea, the path to and decisions regarding peaceful coexistence and eventual reunification, must first and foremost reflect the consent and will of the Korean people. For far too much of Korea's history, external forces have sought to control the fate of the Korean people: fighting wars for control, imposing colonial domination and occupation, arbitrarily dividing the nation, and imposing the interests of the so-called great powers over the aspirations of the Korean people.

As we in the global ecumenical family accompany Korean partners toward that day of peaceful coexistence and eventual reunification, we do so knowing that women in Korea have much to teach about reconciliation and peace to a fractured and divided world. May we listen and learn from one another, look into each other's faces, and together to confront t

he demons of fear, anger and conflict with courage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Online  
Registration



# 2021 International Seminar on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Date** 25 November 2021, 14:00 - 17:40  
(Korea Standard Time, KST)

Online event. Registration <https://bit.ly/3GkdPTj>  
Simultaneous interpretation between English and Korean provided

## | Co-Host Organizations |

Korea Church Women United | Korea Women's Alliance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National YWCA of Korea | Women's Committee of the Korea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Women's Committe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Women's Division of the South Korean Committee for Implementation of June 15 Joint Declaration  
Women's Forum for Peace and Diplomacy | Women Making Peace

## | Co-sponsors |



\*The seminar is funded by co-host organizations and GPPAC.

# 2021 International Seminar on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Date 25 November 2021, 14:00 - 17:40 (Korea Standard Time, KST)

Simultaneous interpretation between English and Korean provided

Online event, Registration <https://bit.ly/3GkdPTj>

## PROGRAM

<p>Opening Ceremony 14:00 - 14:15</p>	<p><b>Moderator:</b> CHO Youngmi (Executive Director,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b>Welcome Remarks</b> from Co-Host Organizations  <b>Congratulatory Remarks</b> from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UN Department of Political and Peacebuilding Affairs, GPPAC, WCDMZ</p>
<p><b>Achievements and Challenges on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Seminar</b></p>	
<p>Session 1. 14:15 - 15:45</p>	<p><b>Moderator:</b> CHOI Susannah (Director, National YWCA of Korea)  <b>Presentation:</b> LEE Hyunsook (Honorary Representative of Women's Forum for Peace and Diplomacy, Former Vice-president of Korean Red Cross, ROK)  <b>Panel Discussion:</b>          - LEE Nayoung (Chair of the Board,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Professor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 ROK)          - LEE Moonsook (Former Executive Secretary for Asian Church Women's Conference, ROK)          - ISHII Mayako (Former President of YWCA of Japan, CEO of Unshusha Foundation Kagawa Archives &amp; Resource Center, Japan)          - Patti TALBOT (Team Leader, Global Partnership Program at the United Church of Canada, Canada)</p>
<p>Break Time</p>	
<p><b>Current Challeng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from Women's Perspectives, and Proposals of the Women's Peace Movement for Lasting Peace</b></p>	
<p>Session 2. 16:00 - 17:40</p>	<p><b>Moderator:</b> KIM Jeongsoo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ROK)  <b>Panels Discussion:</b>          - HAN Mikyung (Standing Representative, Korea Women's Alliance, ROK)          - AKIBAYASH Kozue (Professor, Doshisha University, WILPF Kyoto, Japan)          - WANG Danning (Research fellow, Charhar Institute, China)          - Ann WRIGHT (Board Member, Women Cross DMZ, Veterans for Peace, USA)  <b>Overall Discussion:</b> KO Youkyoung (Consultant, WILPF &amp; Korea Peace Now!)</p>

## 세션 2

### 여성들이 바라본 한반도와 동아시아 갈등과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제안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2021.11.25. 서울

#### 1. 현재 한반도와 그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에서 가장 주요한 지점은 한반도가 70년이 넘도록 전쟁 중이라는 것이다.

한반도는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UN이 창설된 1945년 이후 가장 먼저 분쟁이 일어난 지역이고 현재까지 휴전 상태로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한국전쟁의 주변국으로 분류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고 그들의 군사력은 전세계의 50%를 가깝게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이며, 조선은 중국과 동맹관계이다.

남한과 북한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의 핵무장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었으며, 핵탄두의 소형화와 고성능 발사체의 개발로 핵무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남한의 군사력은 세계 6위이며, 국방예산의 지출은 세계 10위이다. 전략무기의 개발과 생산으로 무기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무기들은 세계 분쟁지역에 팔려나가고 있다. 남한은 사용 금지된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이 도시 한복판의 탄약고에 보관되는 등 폐기해야 할 무기들이 쌓여가고, 부산, 평택에서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생화학무기실험실이 가동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군사력의 '밀도' 이다. 한반도는 세계 어느 곳 보다 높은 밀도의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다. 남북은 '평화적 선언과 합의'들로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지역이다. UN의 국제협약은 국가간의 침략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내전에는 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개입해 왔다. 한반도는 분단, 정전 체제로 언제든지 전쟁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한국의 분단으로 인해 아시아 주변국의 평화와 안보에 밀접한 영향이 있음을

우리는 느낀다. 그래서 한국의 평화, 종전은 동아시아의 평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해소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과 행위들이라고 생각한다. 남의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 또한 북을 비정상화 하며, 고립과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은 핵무기개발과 제재를 맞교환하려고 하지만, 언제나 선제적 핵폐기가 강요되어 왔다.

남한과 미국의 동맹은 한반도의 평화구축과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어 왔으며, 남한은 미국의 동맹국 지위로 분쟁지역에 파병 또한 수행한다. 미국과의 동맹으로 점령국의 지위를 가진다.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의 파병은 분쟁지역의 개발협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리고 분쟁지역의 무력적 개입을 정당화 시키는 도구로 활용된다. 남한과 미군의 군사적 동맹은 군사력의 확장과 미국의 패권 전략에 도움을 주는 비 동등한 관계의 동맹이다.

이러한 상황은 군사주의와 가부장제가 강력한 힘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평화와 안보를 이유로 군사적 힘의 우위를 차지해 무력공격을 차단하려는 목표를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흔히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긴장은 늘 전쟁이나 분쟁의 공포를 동반한다.

적대적인 정책과 행위들, 군사력을 확장하고 우위에 서려는 경쟁은 한국과 아시아에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 2. 그것이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미 전쟁과 분쟁이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일본군 성노예제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역사를 통해 경험하였다. 경험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한에서 남성 중심의 군사문화와 가부장문화는 여성의 시민권을 제한한다. 의무병역에 복무하는 남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 보호받는 여성들의 권리는 다르다는 의견이 상당히 존재한다. "억울하면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이 일상에서 반복되어 출현한다. 통계로 보면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771건, 월평균 64건이었다. 군대 내 동성 대상 성폭력도 333건으로 보고됐다. 2019년 성 정체성 혼란으로 고통을 받던 변희수하사가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강제 전역된 사건이 있다. 군 병원은 음경·고환 상실을 이유로 그녀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이후 재판부는 육군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봐야 했으며,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로 판단해 강제 전역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함의하는 바는 매우 크다.

여성이 군대를 가는 것으로 군필남성들과 같은 시민권을 얻거나 군대가 남성중심적인 공간에서 성 평등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 군대 내에서

여성은 '남자 못지 않은' 군인이 될 것을 요구 받는다. 동시에 여전히 '여성'으로서 성적 대상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성차별과 성폭력의 대상이다. 이러한 문화는 군대 밖에서도 일상으로 재현되며, 문화로 뿌리깊게 작동한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 상황에서 적과의 대치는 여성이 단지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존재하게 만든다. 군사적 우위를 통해 전쟁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신념은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주장과 노력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 **3.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이번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북측 여성들의 참여를 적극 희망하였다. 여성들의 만남은 어떤 평화적 장치보다도 힘이 크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형태의 만남이든 시도하고 이뤄내야 한다. 여성들은 평화를 위해 무력을 증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만나야 하고, 그 만남은 서로에 대한 총부리를 거두어 들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군사력의 경쟁은 군사우위를 통해 공격받을 위험을 낮추는 가부장주의의 표현이다. 세계는 특히, 강대국들은 그러한 이유로 핵을 개발 보유하고, 군사력을 높여 왔다.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인 핵무기와 군사력, 경제력을 갖춘 나라들이다. 이런 힘의 불균형에 반대하는 비핵화 움직임으로 2017년 핵무기 금지조약이 체결되었지만 핵 보유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북에 핵무기 폐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일 수 밖에 없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평화적인 군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화적인 군축을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미 남한과 북한은 평화적인 군축을 위한 군사적 합의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상호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합의는 무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과 군축 어느 것이 먼저인지 고집어 선택하기 어렵다. 이것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전쟁의 위협이 제거되고 서로의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과정에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 **4. 문제 해결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한다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특히 젠더적 시각을 가진 페미니스트 평화운동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군사화와 무기경쟁으로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리의 신념은 확고하다. 여성들의 시각에서 평화 구축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아시아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모색되길 희망한다. UN안보리 1325결

의안의 실행과 여성들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  
한반도 종전을 위한 선언에 함께 하길 희망한다. 이미 각국의 평화주의자들이 이 선언에 함께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한반도의 종전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어 주길 희망한다.

## Session 2

### **Current Challeng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from Women's Perspectives, and Proposals of the Women's Peace Movement for Lasting Peace**

**Han, Mikyung**(Representative, Korea Women's Alliance, ROK)  
Nov. 25, 2021, Seoul

#### **1. What do you think are threats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and why?**

The most important point to consider regarding Peace in East Asia is that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at war for more than 70 years.

The Korean Peninsula is the first region subject to armed conflic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UN in the aftermath of the end of World War II in 1945. The Korean war is still yet to officially end, remaining in a ceasefire.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which are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Korean War, are some of the richest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eir military power occupies nearly 50% of that of the world. South Korea has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s an alliance with Chin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painstakingly attempting to strengthen their military pow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internationally and their nuclear power is being strengthened with the miniaturization of nuclear warheads and the development of high-performance projectiles. South Korea's military power ranks sixth in the world, and its defense budget spending ranks 10th in the world. Sales of weapons continue to increase with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strategic weapons, and weapons are being sold to conflict areas around the world. In South Korea, 1.33 million banned uranium bullets, which are prohibited weapons, were stored in ammunition tanks in the middle of a city. Biochemical weapon laboratories are in operation mainly at U.S. military bases in Busan and Pyeongtaek.

I want to shed light on the "density" of military power here. The Korean Peninsula has a higher density of military power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The two Koreas are not in armed conflict thanks to "peaceful declarations and agreements," but it would not be a surprise if the war breaks out at any time. The UN international convention prohibits acts of aggression between countries but intervention in civil wars is condoned in the name of maintaining peace.

We feel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at risk of war due to division and armistice and that the division of Korea has a close impact on the peace and security of neighboring Asian

countries. Therefore, I think peace in Korea and the end of the Korean war are important factors in East Asia's peace.

I think the biggest reason behind the continuation of unresolved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s hostile policies and actions against North Korea. South Korean policies define North Korea as an enem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lso abnormalizing the North, imposing isolation and sanctions. North Korea has attempted to trade the discontinuation of nuclear weapon development for the withdrawal of sanctions, but preemptive nuclear dismantling has always been forced.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not helpful to the process of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ather, the alliance has hindered peace move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outh Korea also has dispatched troops to conflict areas as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takes on the status of the occupier. The dispatch, named peacekeeping forces, supports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conflict areas but is also used as a tool to justify armed intervention in conflict areas. The military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military is an alliance of unequal relations that helps the expansion of military power and the U.S. hegemony.

This situation shows that militarism and patriarchy continue to prevail with strong power. We often fi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peace and security are used as reasons to retain superior military power and block possible armed attacks. However, such tension is always accompanied by fear of war or conflict.

Hostile policies, actions, and competition to expand military power and maintain superiority are factors that threaten security and peace in Korea and Asia.

## **2. How do you think those threats impact the lives of Women?**

We have learned the impact that war and conflict leave on women's lives through the history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at experience is leading to efforts to not repeat such history.

In South Korea, male-centered military culture and patriarchal culture restrict women's citizenship. Many argue that the rights of men who serve in mandatory military service and those of women who do not and are protected should differ. The phrase "women should go to the military if they feel unfair" appears repeatedly in everyday life.

Statistics show that 771 cas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occurred last year in 2020. This amounts to an average of 64 cases per month. 333 cases of same-sex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were reported.

In 2019, Sergeant Byun Hee-soo, a transgender soldier, was forcibly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after undertaking gender reassignment surgery. The military hospital deemed her to be physically and mentally handicapped because of her lack of male sexual organs. The court later ruled that it was illegal for the military to forcibly discharge Byun, who had gone through gender reassignment surgery to become a transgender woman, under

the claim that she was mentally and physically handicapped as a man. The implications of this case are significant.

The expectation that women can gain the same citizenship rights as men who have served in the military by going to the military or that the military can transition from a male-centered space to a gender-equal space is an illusion. Women in the military are required to be "no less than men" soldiers. At the same time, women are still subject to sexual objectification,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violence. This culture is reproduced in everyday life outside the military and is deeply embedded in Korean society.

In the context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war has not ended, confrontation against the enemy reduces women to objects of protection. The belief that military superiority would prevent war attacks does not fully recognize women's arguments and efforts for peace

### **3. What do you think are needed to address the threats and difficulties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In preparing for this "International Seminar on Peace in East Asia and the Role of Women," we hoped that North Korean women would be able to join us. I think women's encounters are more powerful than any other peace measure. Encounters, in whatever form they may take, must be attempted and achieved. Women do not think it is ideal to increase military power for peace. We must meet each other. We believe that these encounters will move us to no longer point guns at each other.

Competition of military power is an expression of patriarchy that seeks to lower the risk of being attacked through military superiority. The world powers have developed and possessed nuclear weapons and increased military power for that reason.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re countries with the world's most powerful nuclear weapons and military and economic powers.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as signed as a result of the denuclearization movement that opposed such power imbalance, but countries that already possess nuclear weapons are not included in this treaty. With South Korea protected by the U.S. nuclear umbrella, the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is inevitably a difficult condition for North Korea to accept.

Peaceful disarmament is essential for peace in 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As mentioned earlier, mutual trust needs to be the basis for peaceful disarmamen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already reached a military agreement for peaceful disarmament. However, the agreement is being ignored as mutual trust is questioned.

Given these contexts, we call for an end-of-war declaration. It is difficult to choose whether ending the war or disarmament comes first. They should be executed simultaneously. Ending the war is most needed. I am confident that the removal of the threat of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mutual trust will be important steps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4. What would you suggest or propose as activities in which women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threats or overcome the difficulties?**

I think clos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especially the cooperation of feminist peace activists who have gender-based perspectives - is important. We hold a firm belief that militarization and arms competition cannot guarantee peace. Peacebuilding should be addressed from the perspectives of women. I hope that Asian women will continue to seek cooperation for peace. We should work together to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and exp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 세션2

### 여성들이 바라본 한반도와 동아시아 갈등과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제안

아키바야시 코주에(윌프 교토, 도시샤대학교)

2021.11.25. 서울

#### 1. 현재 한반도와 그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쟁이 없고, 모든 이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 받을 때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할 것이라 상상합니다. 이것이 평화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일상 속 권력의 역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특히 가부장제를 전쟁의 근원으로 이해하며, 가부장제 사회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위협은, 1)일본의 식민주의와 인종주의, 2)가부장제와 성 차별주의, 3)군국주의 이렇게 세 가지 이데올로기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이 상호 작용하고, 서로를 강화하며, 연결되어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일본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도발과 일본인 납북 문제를 이유로 들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요구를 '시기상조'라 평가했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종전에 대한 거부감은 재일 동포와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뿌리 깊은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에서 기인합니다.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는 동북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성 격차 지수 보고서의 정치 권한 부문에서 성 불평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부족은 종전 및 가부장제와 성차별로 인한 여성인권 보장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미군 주둔과 한미일 동맹을 통해 표상되는 군국주의는 한반도 평화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합동 군사 훈련은 이웃 나라 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며, 동북아 국가들이 화해와 평화를 쌓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군사적 활동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 2. 그것이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이데올로기는 서로 교차하며 동북아 지역의 여성들에게 더 많은 부담감을 줍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는 한반도 평화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의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문제이며,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성차별주의와 가부장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사화된 국제 정치는 여성들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이 문제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왔습니다.

군국주의의 부정적 영향은 오키나와처럼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서 사는 여성들이 더욱더 심하게 경험합니다. 미군 부대를 위한 성 산업 등 미군들에 의한 성폭력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왔습니다. 이는 외국 군대의 장기 주둔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미국 주둔지에서 여성들과 소녀들이 미군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도록 했습니다. 페미니스트 평화 운동가들은 미군과 주둔지 사이 주둔군 지위 협정 등 양자 협정이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을 제도화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 3.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계 여성들이 더 넓고, 긴밀한 연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위협에 대해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분석하고, 한국전쟁 종전과 인권과 존엄성의 존중을 촉구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페미니스트 비전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분석과 비전은 가부장제 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차별주의가 폭력을 용인하고 군국주의를 강화하는 가부장제 아래에서 전쟁을 만들고, 정당화한다는 것을 짚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미니스트 평화 운동과 동북아 지역 연대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초국가적 페미니스트 평화 운동은 페미니스트 분석을 제시하는 것에 더해, 탈군국주의, 군비축소, 탈식민주의가 동아시아 평화를 지속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 4. 문제 해결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한다면?

여러 가능한 행동들이 있겠지만, 초국가적 페미니스트 평화 연대 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어려움과 장애를 해결해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성운동이 큰 노력을 해왔지만, 동북아 지역 여성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국제기구, 국제 시민사회단체와 UN 기구 등을 통해 여러 대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방 예산에서 소외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페미니스트적 예산 편성을 통해 자원 배분 대안을 찾고, 비무장화와 군비축소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가시화 되었던 여성들의 요구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나 여성평화안보 의제 이행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 행동을 만드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국가 행동 계획을 작성하여 군성노예제와 외국 군대의 장기 주둔 하 성폭력 등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민주의, 가부장제, 군국주의의 교차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현 이데올로기를 바꿔가기 위한 방법과 주체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Session 2

### **Current Challeng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from Women's Perspectives, and Proposals of the Women's Peace Movement for Lasting Peace**

Kozue Akibayashi(WILPF Kyoto, Doshisha University)  
Nov. 25, 2021, Seoul

#### **1. What do you think are threats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and why?**

I envisio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condition in which there is no war and everyone's human rights are achieved with their dignity respected. I argue this is a feminist perspective on peace that problematizes power dynamics of our everyday life, particularly patriarchy, as a source of war, and that pays closer attention, for durable peace, to those who are made vulnerable in a patriarchal society. From this feminist perspective, threats or impediments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are considered to include three ideologies: Colonialism and racism by Japan; patriarchy and sexism; and militarism. It is crucial that this feminist perspective stresses on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at these ideologies interact and reinforce each other, and they are interlocked.

Japan's colonialism and racism influence Japan's policy on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ven directly. Recently, the Japanese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was reported to have assessed President Moon Jae-in's call for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Korean War "premature," citing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the abduction issue as reasons, while US President Joe Biden was reported to have not made any explicit comment. PM Kishida's remark was deeply disappointing, but such reluctance toward ending the Korean War, if not antagonism, stems from the deeply rooted colonialism and racism of the general public of Japan towards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Korean diaspora in Japan.

Patriarchy and sexism are a persistent problem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s shown, for example, in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by World Economic Forum, in which gender inequality in political empowerment is evident. Lack of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on peace has delayed ending the war and assuring the human rights of women for patriarchy and sexism as ideologies that justify exercise or threat to exercise coercive power over the other have prevailed.

Militarism is manifested in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and in the alliances between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It has posed serious and direct threats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ir massive military force and facilities, including

joint military exercises that bring forces from other regions have provoked military tensions to neighboring countries, preventi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from creating opportunities for reconciliation and for building trust. These military activities have caused insecurity of people in the region.

## **2. How do you think those threats impact the lives of Women?**

The above mentioned three ideologies of threats interact and impose more burden on women in the region. The unresolved “Comfort women” issue 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ese imperial military is one of the profound problems and an obstacle to achiev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first and foremost the problem of colonialism and racism of Japan, and it also reflects sexism and patriarchy in the region that undermine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their dignity. Militarized international politics have used the issue to promote the military alliance at the expense of the dignity of women.

The negative impacts of militarism are experienced more severely by women living in the host communities of U.S. military in the region, for example, Okinawa in Japan. Sexual violence by the U.S. military including sex industry for US troops have continued for many decades in this region. This is an issue of long-term foreign military stationing. Women and girls in the host communities of U.S. military in the East Asian region such as South Korea, Japan and the Philippines have suffered sexual violence by U.S. soldiers. Impunity of these sexual violence has contributed to continuation of the plight. It has been a common problem identified by feminist peace activists that the bilateral agreements such as Status of Forces Agreements and negotiations between United States and host nations have institutionalized impunity of sexual crimes.

## **3. What do you think are needed to address the threats and difficulties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Women working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ound the world need to forge wider and closer solidarity, as we are doing now, to offer our feminist analysis of threats as well as our feminist vis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East Asian region that calls for ending the Korean War and respecting human rights and dignity. Such feminist analysis and vision should try to demonstrate tha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r sexism that we experience and witness in our everyday life of patriarchy are connected to or even have created and justified war because violence is sanctioned in patriarchy, reinforcing militarism.

Feminist peace movement and solidarity in the region is needed more than ever now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o offering feminist analysis, transnational feminist peace movement need to articulate that demilitarization and disarmament and decolonization are the key to lasting peace in the region.

#### **4. What would you suggest or propose as activities in which women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threats or overcome the difficulties?**

Among many possible actions, to name a few, further strengthening transnational feminist peace solidarity movements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activities to tackle the difficulties and impediments. As South Korean women's movements has made tremendous efforts, establishing even an arena for women's gatherings in the region has been a daunting task. This needs to be a continuing effort involving women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Reaching out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r UN bodies for assuring multiple channels would help.

Demilitarization and disarmament can be pursued by demonstrating the resource allocations and its alternative in such activity as "feminist budgeting" to highlight the people's needs that are neglected in the current military budget. This can also bring attention to the needs of women that are traditionally made invisible or ignored.

Creating a regional civil society action plan for implementation of UNSCR 1325 or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is another possibility of action. The process of drafting a regional action plan that may specifically addresses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and sexual violence under long-term foreign military stationing would promote understanding of interlocking of colonialism, patriarchy and militarism, and identify actors and ways to transform the current ideological problem that underlies the impediments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n region.

## 세션2

### 여성들이 바라본 한반도와 동아시아 갈등과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제안

앤 라이트(평화재향군인회, WCD운영위원)

2021. 11.25. 서울

#### 1. 현재 한반도와 그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것은 대화와 토론 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미군 군수산업은 한국,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호주에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무기 시스템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입니다. 이들은 백악관에서부터 수만 명을 고용하는 무기 공장이 있는 주의 의원들이 있는 미국 의회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미국 정부는 전쟁 무기를 만들고 판매할 뿐 아니라, 선전을 통해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7,800억 달러의 막대한 군사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적"이라 치부하는 것은 주류 언론을 통해 조직하는 선전의 대표적 사례로, 70년 된 "북한은 우리의 적" 선전전을 능가합니다.

선전 캠페인을 만들고,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큰 위협이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해양법협약의 "항해의 자유" 관련 내용에 따라 남중국해에 미 해군 함정을 배치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해양법협약 자체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협약 중 미국 제국주의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 차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시합니다. 수많은 미국 함정들과 영국과 프랑스 등 NATO 나라들의 함정들이 군사적 실수로 인한 분쟁 촉발과 핵 재앙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핵잠수함이 “표시되지 않은 해저산”과 충돌하여 심각한 손상을 입고 미 확인된 수의 탑승 해군들이 부상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충돌을 군사 사건으로 오인하고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했다면, 국제적인 위기나 심각한 핵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의도적으로 바꾸며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미국은 닉슨 행정부 시절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위해 대만의 외교적 인정을 철회한 이후에도 50년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왔으며, 최근 오바마·트럼프·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무기 판매를 대폭 늘리고 600명이 넘는 미군 훈련병을 대만에 파견했습니다. 미국의 고위급 외교 및 행정부 관리들과 최근에는 의회 대표단도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50년이 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이제 ‘모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부러 중국 정부를 도발하여,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을 미군 주둔을 늘리고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늘리자, 중국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경계에 다수의 항공기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거론하며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전쟁 담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에 대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COVID로 인한 북한의 봉쇄와 미국의 정책 부재 사이, 북한 정부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 가했던 부담스러운 대북 제재가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 2. 그것이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동아시아 지역의 이러한 위협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남북 대화를 계속 방해하고 북한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의 부재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병역 의무의 기초가 되어 사실상 한국의 모든 어머니와 가족이 미국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어머니의 딸들이 한국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데, 미군과 마찬가지로 한국 군대 내 성폭력도 이어지고 있으며, 여군들도 군부대 근처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미국 여성들도 미국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의 아들딸이 미군에 있고 선박, 항공기, 잠수함, 지상군을 타고 이 지역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중동과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처참한 전쟁에 이어 내세운 "아시아 회귀" 전략은 새로운 미군 병사들이 미국의 분쟁 정책에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많은 젊은이가 장기적으로 감정적,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그들의 어머니, 자매, 아내, 딸들이 평생 함께 고통받을 것입니다.

잔혹하고 야만적인 미군 작전으로 인해 미군 내 자살자 수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한 미군의 수보다 많습니다. 이는 군인 가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한 것의 여파와 분노가 남아 군인 가족 내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는 여성 참전군인 등을 포함하여 참전군인들이 노숙을 경험하는 것은, 미국이 참전하는 사람들이 평생 받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전쟁을 벌였기에 나타난 일입니다.

### 3.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과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여성들은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의 폐해를 다뤄야 합니다. 참전 외상후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경험했거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과 함께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전쟁의 폐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게 군사적 대립보다는 협상과 외교를 사용하라고 압박해야 합니다. 군사적 대립은 수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군사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참전 군인과 가족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모든 나라의 여성들은 참전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전쟁의 폐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증조부, 한국이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할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 남편, 형제들을 보아 왔습니다.

이 여성들, 어머니들, 자매들, 딸들은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정치인들에게 전쟁이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월 11일 미국에서는 참전군인의 날을 기렸습니다. 평화재향군인회에서는 참전군인의 날 지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단체의 세계 지부들에서는 11월 11일을 본래 의미인 1차 세계대전을 끝낸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이제 103년이 지난 2021년 11월, 우리는 모든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휴전을 요구합니다. 특히 1953년 한반도에서 휴전한 후 68년간 존속되어왔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으로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 4. 문제 해결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한다면?

여성들은 이미 그들의 나라와 지역의 평화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리에서 촛불시위, 평화 행진, 심포지엄, 그리고 이번 회의와 같은 평화를 위한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 국제 출판물에 평화에 대한 위협이 여성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한 분야가 바로 선출직 출마라는 정치적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선되면 지역사회의 안보 환경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들에게 로비하여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여성들이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 Session 2

### **Current Challeng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from Women's Perspectives, and Proposals of the Women's Peace Movement for Lasting Peace**

**Ann Wright**(WCDMZ, Veterans for Peace, USA)  
Nov. 25, 2021, Seoul

#### **1. What do you think are threats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and why?**

The threats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are primarily U.S. government policies that promote and encourage confrontation and conflict rather than dialogue and discussion.

The very profitable U.S. military contractors who make billions of dollars from weapons systems that are purchased or provided to South Korea, Japan, Okinawa, Taiwan, the Philippines and Australia are a mammoth influence on U.S. politicians from the White House to the U.S. Congress in which members come from states where their war factories employ tens of thousands of workers for the war machine.

Besides manufacturing and delivering weapons of war throughout the region, the U.S. government creates a war atmosphere through propaganda and lies in order to sell the need for a massive \$780 billion military budget to the U.S. public. The current "China is Our Enemy" war mongering is a classic example of orchestrated propaganda with the mainstream media, now surpassing the 70 year old "North Korea is Our Enemy" propaganda campaign.

First creating the propaganda campaign, then following with military operations in the region is a very dangerous threa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Since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U.S. has sent many U.S. Navy ships into the South China Sea in "Freedom of Navigation" deployments under the Law of the Sea treaty provisions, although the U.S. has refused to sign the Law of the Sea treaty itself, but instead conveniently uses parts of the treaty that it finds helpful to U.S. imperialism and ignores other parts that would restrict its operations. Scores of U.S. ships, now joined by ships from NATO countries, particularly the UK and France, have made the probability of military mistakes that could lead to conflict and either a conventional or god forbid, a nuclear disaster very possible.

The recent underwater collusion of a U.S. nuclear submarine into an "unmarked seamount" that caused extensive damage to the submarine and injuries to an unknown

number of sailors could have resulted in the U.S. mistaking the collision as a military incident and making an instantaneous military response to its own mistake that could have gone out of control causing an international crisis if not a disastrous nuclear situation.

The purposeful change by the U.S. in its “strategic ambiguity” policy toward Taiwan has exponentially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military action in the East Asia region. While the U.S. has sold weapons to Taiwan over the 50 years since withdrawing diplomatic recognition of Taiwan during the Nixon administration to recogniz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der the Obama,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the U.S. has dramatically increased weapons sales, sent over 600 U.S. military trainers to Taiwan and has sent the highest levels of U.S. diplomatic and administration cabinet officials to Taiwan, including very recently a Congressional delegation, in the 50 year policy of “strategic ambiguity” which now is not “ambiguous” at all.

The U.S. is purposefully poking a stick in the eye of the PRC government to force it to react in a manner that the U.S. war makers can use as the rationale to increase U.S. presence in the region and increase the US military budget. As the PRC responds to increased U.S. presence on Taiwan with large numbers of aircraft coming to the edge of Taiwan’s air defense zone, U.S. war rhetoric towards China takes on a fever pitch in Washington.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not completed its policy review of its attitude toward North Korea. Between the North Korea lockdown of the country due to COVID and the lack of U.S. polic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ccasionally tests missiles to remind Washington that the onerous sanctions the U.S. put on North Korea during previous administrations are still there, harm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 **2. How do you think those threats impact the lives of Women?**

These threats in the East Asia region impact women in a variety of ways. The U.S. continues to obstruct intra-Korean dialogue and prevent a peace agreement from being signed with North Korea. The lack of a peace agreement is the basis for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obligation for males in South Korea, resulting in virtually every mother and family in South Korea being affected by U.S. policies. Additionally, all too many of mothers’ daughters serve in the South Korean military, which like the U.S. military, has a history of sexual violence toward women in the military as well as toward women to live in communities near military bases.

Women in the U.S. are also affected by U.S. polic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as many of their sons and daughters are in the U.S. military and are sent on ships, aircraft, submarines and land forces into the region. The U.S. “pivot to Asia and the Pacific” following the disastrous U.S. wars on Iraq, Afghanistan and other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mean that a new generation of U.S. military personnel is being called on to implement conflict policies of the U.S. for which many of these young people will suffer long term emotional and physical consequences which their mothers, sisters, wives and daughters will suffer with them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s a result of brutal and barbaric US military operations, the number of suicides of U.S. military personnel is higher than the numbers of U.S. military killed in Iraq and Afghanistan. These suicides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lives of the military families of wives and children. Additionally, domestic violence in military families is rampant with wives and children receiving the brunt of the anger so many military personnel feel as a residual effects of killing and wounding others in war.

Homelessness of military veterans, including women veterans with children, is a consequence of the wars the U.S. has waged with little thought of the lifetime impact on those who wage the wars.

### **3. What do you think are needed to address the threats and difficulties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Women of the countries of East Asia and the Pacific, including the U.S., must become more involved in recognizing the fallacy of military conflict and war as a means of resolving international disputes.

Women must use their experiences in dealing with the results of war, of dealing with persons with post-traumatic stress, of depression, of violence against family members, to pressure on their governments to use negotiation and diplomacy rather than military confrontation that will tens of thousands of innocent civilians and produce another generation of veterans and their families who are harmed by these brutal military actions.

In all the countries of East Asia and the Pacific, including the U.S., women know very well the horrific results of war from their loved ones who have returned from war----whether they be their great-grandfathers from World War II, their grandfathers from the wars in Korea and on Viet Nam, and their fathers, husbands, brothers from the wars on Afghanistan and Iraq.

These women, mothers, sisters, daughters, can vividly describe to the politicians that get our countries into wars, the effects of war on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In the U.S. earlier in November, on November 11, the U.S. had its annual commemoration of veterans of war in the national holiday called "Veterans Day." Our national Veterans For Peace organization does not agree with the designation of the day as "Veterans Day" and our chapters around the world acknowledge November 11 for its original purpose--- which was to mark the Armistice that ended World War I in 1918.

Now 103 years later, in November 2021, we call for an armistice to end all wars, particularly turning the 68-year-old armistice that ended official military ac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53 into a peace agreement, or hopefully a peace treaty.

**4. What would you suggest or propose as activities in which women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threats or overcome the difficulties?**

Women are already deeply involved in activities that address the threats to peace in their countries and the region.

They already participate in peace vigils on street corners, marches for peace, symposia and conferences for peace, such as this one.

They write articles for loc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publications detailing how threats to peace affect them as women and their families.

One area where I think women can participate more is in the political process by running for elected office where if they are elected, they can have direct influence o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ir community.

Increasing pressure by lobbying politicians who make the decisions on national security policies is an area where women can be more effective.

## 세션2

### 여성들이 바라본 한반도와 동아시아 갈등과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제안

왕다닝(중국 차하르 연구소 연구원)

2021.11.25. 서울

#### 1. 현재 한반도와 그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패널에는 유엔의 제재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 대한 국제 논의에 북한 대표단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어색하고 무의미합니다. 제가 7년 동안 동북아 평화 발전 활동에 참여한 경험으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을 지배해온 냉전적 사고방식입니다. 만연한 북한의 범죄화와 악마화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의견 제안 대신 비난이 과정을 지배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우리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하며 거의 모든 관련 활동에서 북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난과 적대적인 어조는 양측에 증오를 자극하고 진전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도 없기 때문에 평화 구축 과정에 큰 위협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들, 장교들, 사회 활동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점을 자주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2019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세계평화재단 주최 국제회의에서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는 이미 북한을 탈(脫)악마화 방식으로 세계에 제시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계는 또한 북한을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의 방식이 평화 구축 과정에 거의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제평화국이 주최한 또 다른 국제회의에서 미국의 학자 케빈 마틴도 비슷한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악마화를 해체하고 시민사회 플랫폼을 통해 국제사회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2. 그것이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젠더 관점에서 이러한 주요 위협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2000년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미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를 발표했고 그 이후 20년 동안 10개의 다른 결의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의안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평화 구축 과정에서 젠더 이슈의 주류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이 유엔의 요구사항보다 한참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구축 과정이 유엔 프레임워크를 따라잡고 맥락화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우리는 북한 여성의 삶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북한은 남한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훨씬 높습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과 여성의 평화구축 과정 참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부터 성 평등 문제, 여성의 공적 생활 참여율까지 양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3.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는 진지하게 연구하고 따라야 할 국제 사회의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설립합니다. 남한은 이미 이 방향으로 진전을 이뤘습니다. 남한은 2020년 12월 국경을 넘어 반복한 자료를 보낸 무허가 단체를 처벌하는 법을 발표했으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NGO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남한은 이미 정책과 법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행위는 높이 인정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상대방의 적대적 태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에도 불구하고 학자들과 국가들은 결의안 이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저는 세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정부, 유엔안보리, 기타 유엔기관에서 평화구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NGO의 역할이 부여되고 승인되어야 하며, 이는 유엔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제 NGO조차도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지역과 하위 지역의 권력과 문화를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평화 구축 과정에 참여한 국가들과 협력하고 토착적 견해를 존중해야만 국제 NGO들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 평등을 표방하는 것과 현지의 문화와 풍습을 무시하고 외국 사상을 현지에 강요하는 것은 국가, 지역, 하위 지역의 흐릿한 경계를 넘는다는 점에서 분명 별개의 일입니다. 이 구현 과정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고 따라야 합니다.

#### 4. 문제 해결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한다면?

남한이 다양한 수준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대표를 포함한 북한 내 여성 단체와 접촉하기 시작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한편, 여성의 삶과 국가에 대해 더 알 수 있도록 해당 국가 내에서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을 새롭게 제시할 방식을 고안하십시오. 평화 구축 과정에 안보리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젠더의 주류화를 이루십시오.

## Session 2

### **Current Challeng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from Women's Perspectives, and Proposals of the Women's Peace Movement for Lasting Peace**

**Dr. Wang Danning**(Research Fellow at Charhar Institute, China)  
Nov. 25, 2021, Seoul

#### **1. What do you think are threats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and why?**

Up to today's roundtable, because of the UN sanction and various other reasons, no DPRK representatives are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building process. This fact itself is already awkward and pointless. Based on my seven-year's participation in the Northeast Asian peace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e major reason that this was created was because of the Cold War mentality that had dominated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Korean Peninsula. Prevailed criminalization and demonization of DPRK still existed. Accusations dominated the process instead of suggestive opinions. As the result, even today, we know little about what is going on in the country and there is no DPRK voices in nearly all relevant activities.

This is a big threat to the peacebuilding process because the accusations and hostile tones irritate hatred for both sides and could not do anything positive in terms of progress making. International scholars, officers, and social activists pointed out this frequently in various occasions. For example, back in 2019, dur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zed by the Global Peace Foundation in Ulaanbaatar, former British ambassador to DPRK, Mr. John Everard, already pointed out that it was time to present DPRK to the world in a de-demonized way. The world also needs to figure out how to present DPRK in a genre that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current one. Only by doing so we can move forward because the current genre contributes little to the peacebuilding process. Again, in another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zed by International Peace Bureau, American scholar Mr. Kevin Martin also made the similar points: it is time to de-demonized DPRK and on the platform of civil socie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encourage two Koreas to interact and to work together.

#### **2. How do you think those threats impact the lives of Women?**

From the gender perspective, these major threats have serious consequences. Back in 2000, the UNSC already issued 1325 Resolution and ten other resolutions were also issued in the next twenty years. All of these resolutions emphasized the mainstreaming of gender issue in peacebuilding process to protect women's rights. From this

perspective,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 is way behind the UN requirements and we can easily see how much work we need to do in order to catch up and contextualize the peacebuilding process into the UN framework.

Academically, we know little of women's lives in DPRK. Even though DPRK shares the same culture background with ROK, because of the socialist system, women's participation in labor force is much higher. From the social welfare system to the gender equality issue, and the r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public lives, we need data to show the differences of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implement the UNSC resolutions and to include women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 **3. What do you think are needed to address the threats and difficulties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The UNSC 1325 Resolution sets up the standardized framework for the international world that needs to be studied and followed seriously. ROK already made progress in this direction. In December 2020, ROK issued a law to punish the unauthorized organizations that crossed the border to send anti-DPRK materials and the highest punishment could be three-year in prison or up to 30 million South Korean won's penalty. By regulating the NGO's activities, ROK already changed its policies and laws towards a positive direction and this act should be highly recognized and appreciated. In fact, this was also the turning point of the hostile attitude from the other side.

However, even with the UNSC 1325 Resolutions, scholars and countries also pointed out some serious problems in the resolutions which need to pay attention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Because of the time limits, I only highlight three points. First, the role of NGO's need to be endowed and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the UNSC, and other UN agencies to conduct peacebuilding process and this can ensure the UN standards to be followed. Second, even the international NGOs do not have the right to ignore the country's sovereignty and ignore the region and the sub-region's power and culture. Only by working with countries that involved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and respecting the indigenous views, can international NGOs work locally. Third, it is one thing to advocate gender equality, but it is definitely another in terms of crossing the blurry boundaries of country, region, and subregion to ignore the local culture and customs and to force foreign ideas into the local societies. All of these needs to be addressed and follow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 **4. What would you suggest or propose as activities in which women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threats or overcome the difficulties?**

Highly recommend ROK starts to contact women's organizations in DPRK by including woman representatives in different levels of social activities. Meanwhile, start to conduct research in the country to know more about the lives of women and the country so that new genre and presentations of DPRK can be formed for further moves. Adopt the UNSC framework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to follow the mainstreaming gender issue in more and more fields.

# 2021 International Seminar on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Date 25 November 2021, 14:00 - 17:40 (Korea Standard Time, KST)

## Session 1.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n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Seminar



### LEE Hyunsook

(Honorary Representative of Women's Forum for Peace and Diplomacy, Former Vice-president of Korean Red Cross)

"동북아는 상습적인 분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자안보협력기구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기존의 군사중심의 집단안보체제와는 다른 성격의 새로운 공동안보협력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열려 있다는 얘기다."



### LEE Nayoung

Chair of the Board,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Professor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

"여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당사자들이 있었고, 활동가들이 있었으며, 연구자들이 있었다. 분단 냉전체제의 희생자로 머물지 않고 연구와 활동을 주도하며, 남북한은 물론 한일 간 적극적 가교 역할을 했던 재일조선인 여성들이 있었다."



### LEE Moonsook

Former Executive Secretary for Asian Church Women's Conference

"결국 정치 사회 지도자들의 힘만으로는 안되며, 주변과 저변으로 깊어지고 넓어져야 치유를 향한 평화의 배를 온전히 띄울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남북 동북아 아시아 여성시민들의 드넓은 삶의 교류, 특히 직접적인 만남의 장을 넓히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 ISHII Mayako

Former President of YWCA of Japan, CEO of Unchusha Foundation Kagawa Archives & Resource Center

"In order to tackle the situations and challenges I mentioned, it is crucial that women play active roles and work together beyond regions and countries. The significance of the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the Role of Women lies in this collaboration."



### Patti TALBOT

Team Leader of Global Partnership Program at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s we in the global ecumenical family accompany Korean partners towards that day of peaceful coexistence and eventual reunification, we do so knowing that women in Korea have much to teach about reconciliation and peace to a fractured and divided world."

## Session 2. Current Challeng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from Women's Perspectives, and Proposals of the Women's Peace Movement for Lasting Peace



**HAN Mikyung**  
Korea Women's Alliance



**AKIBAYASH Kozue**  
WILPF Kyoto, Doshisha University



**Ann WRIGHT**  
WCDMZ, Veterans for Peace



**WANG Danning**  
Charhar Institute

## Speakers' Short Bio 발표자 소개

### 1세션

#### 이현숙 LEE Hyun-Sook

이현숙은 1991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토론회 때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토론의 사회자로 참석했다. 2000년 이후에는 시민사회의 남북민족공동행사 실무협상단의 여성대표, 남북여성, 청년통일대회 협상단 단장으로 참석해 "2002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성사시켰다. 2018년에는 '9월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그는 현재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부의장도 역임했다.

LEE Hyun-Sook participated as a discussant in the panel on "Patriarchal Culture and Women" during the 1991 "Seminars on the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in Seoul. Since 2000, she participated as the women's representative in the working-level Negotiation Team for Inter-Korean National Events in civil society and as the lead of South and North Korean Women's and Youth Unification Meeting Negotiating Team, contributing to the successful hosting of "2002 South and North Korean Women's Unification Meeting." In 2018, Lee visited Pyongyang as a "special attendant for the September Pyongyang Summit." She is currently serving as an honorary representative at the Women's Forum for Peace & Diplomacy and the chair of the National Council of Unification Education. She had also served as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Red Cross and female vice president of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이나영 LEE Na-Young

이나영은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남성중심적 민족주의, 섹슈얼리티 간 관계를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탐구하면서 일본군성노예제, 미군기지촌, 성매매, 성폭력, 성소수자 등의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누가 여성을 죽이는가: 여성혐오와 페미니즘의 격발』,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된다』 등이 있으며,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Un/forgettable histories of US camptown prostitution in South Korea: Women's experiences of sexual labor and government policies" 등 다수의 한영일 논문이 있다. 이메일 주소: nylee@cau.ac.kr

LEE Na-Young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and Chair of the Board of the Korean Council for the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She has been deeply involved in the subject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U.S. military bases, prostitution, and sexual minorities across activism and academia. Her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lude "Un/forgettable Histories of US Camp Town Prostitution in South Korea: Women's Experiences of Sexual Labor and Government Policies" (2017) and "The Korean Women's Movement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Navigating between Nationalism and Feminism" (2014).

### **이문숙 LEE Moon-Sook**

이문숙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로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등에서 총무 혹은 프로그램 담당으로서 세계, 아시아, 한국의 초교파적 운동의 지속적인 의제인 정의, 평화, 창조보전에 관한 활동을 젠더 관점에서 펴왔다. 한반도/동북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북지원을 위한 교회여성 캠페인들, 새로운 평화운동 모색을 위한 교육과 평화문화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남북-북미/한-재일-일 교회여성교류 등에서 실무를 했다. 평화감수성을 함양하며 상시적 평화운동을 펴기 위한 '교회여성평화연대'를 조직했다. 민화협 공동 여성위원장, 6.15 남측위 여성위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고,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주도한 이우정 선생에 대한 평전, <오직 한가지를 택하였다>의 저자이다.

Lee Moon-Sook is a pasto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She has been in charge of general affairs and program at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Korea Church Women United, and Asia Church Women's Conference, and has been engaged in the trans-denominational activities that have been the continuous agendas in the world, Asia, and Korea related to justice, peace, and preservation of creation from a gender perspective. Regarding the issues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she worked on church women's campaigns to support North Korea, education and peace culture festivals to seek new peace movements, and church women's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among Korean, Korean Japanese and Japanes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She organized the 'Church Women's Solidarity for Peace' to foster peace sensitivity and keep up peace movements. She served as Co-chair of the Women's Committee of the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as a chair at the Women's Division of the South Korean Committee for Implementation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She is the author of <I have chosen only one thing>, the critical biography of Lee Woojeong who led the Seminar on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 **이시이 마야코 Ishii Mayako**

이시이 마야코는 오차노미즈 국립 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도쿄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과 식민지의 국제관계 역사를 공부했다. 도쿄대학교와 게이센여자대학교에서 40년 넘게 가르쳐 왔으며 현재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독교 중학교 시절부터 YWCA운동에 참여해 왔다. 1960년 봄에 한국과 일본의 YM& YWCA 학생 국제회의에 참

석하기 위해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다. 1971년에는 가나에서 열린 세계YWCA협의회에 30세 이하 청년 대표단 중 하나로 참석했다. 그 이후, 주로 아시아 국제 협력과 연대에 관한 다양한 위원회에서 많은 직책을 맡았다. 이시이는 게이센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총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평화학회의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Mayako Ishii graduated from the Ochanomizu National Women's University, and the Post Graduate School of the Tokyo University and got the Doctor's degree. Her major is the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Great Britain and her colonies and got the Master's and Doctor's degree. She taught in Dokkyo University and Keisen Women's University for more than 40 years, and now emeritus professor. She has been involved in YWCA movement since her Christian junior high school days. She had a chance to come to Korea in the spring of 1960 for attend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tudent of YM& YWCA of Korea and Japan. She attended the General Council held in Ghana in 1971 as one of Youth delegates under 30 years old. Since then, she has held many posts in various committees mainly concerning As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Ishii has been teaching a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Keisen University, being its former President, and now an Emeritus Professor. Dr. Ishii served as the Vice President and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Peace Studies Association of Japan.

### **패티 텔벗 Patti TALBOT**

패티 텔벗은 캐나다 연합 교회 글로벌 파트너십 팀을 이끌고 있다. 1994년부터 연합 교회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아 왔다.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인 재일동포들과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선교사 부모님을 둔 텔벗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함께 평화에 대한 비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캐나다 연합 교회의 책무는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한국인 파트너, 그들의 리더십과 그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Patti Talbot leads The United Church of Canada's Global Partnerships team. She has served in various positions on the United Church's national staff since 1994. Born in Japan of missionary parents who lived and worked among Korean residents, she has a lifelong commitment to a vision of peace with justi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he United Church of Canada's commitment to peace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 is rooted in its history and its accompaniment of Korean partners' and their leadership for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 2세션

### 한미경 HAN Mikyung

한미경은 2019년부터 한반도평화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전국여성 풀뿌리 조직인 전국여성연대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한반도 평화군축, 종전선언,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통일로드\_걷는여자'사업을 통해 평화운동의 지역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자주여성연대의 대표였으며, 여성주의운동과 한반도평화와 평화적 군축운동을 전개해 왔다. 남북한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DMZ)가 위치한 경기도에서 다양한 여성 활동을 조직하였다. 2015년 WCD행사의 경기도지역 집행책임자로 임진각 행사를 총괄하면서 경기도 여성들의 참여를 조직했다.

HAN Mikyung has served as Standing Representative of the Korea Women's Alliance, a nationwide grassroots organization for gender equal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2019. She is participating in movements for peaceful disarmament of the Korean Peninsula,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peaceful unification. She is promoting and popularizing the peace movement through the project "Walking Women on the Unification Road". She was the representative of the Gyeonggi Autonomy Women's Solidarity and has been carrying out the feminist movement, peace, and peaceful disarmament mov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She has organized various women's activities in Gyeonggi-do, where the inter-Korean border region and Demilitarized Zone (DMZ) are located. In 2015, she served as executive director of the WCD's Imjingak event in Gyeonggi-do and organized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Gyeonggi-do.

### 아키바야시 코주에 Kozue Akibayshi, Ed.D.

아키바야시 코주에는 일본 교토 도시샤대학교 글로벌스터디즈연구과 교수로 페미니스트 평화 교육/연구를 가르치고 있다.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WILPF)의 회원이며, 연맹 국제 대표를 역임(2015-2018)하기도 했다. 2009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에 참여하였고, 2015년 북에서 남으로 DMZ를 건너온 30명의 여성들(위민크로스 디엠지)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 위민크로스디엠지(WCDMZ)의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Kozue is a professor at Graduate School of Global Studies, Doshisha University in Kyoto, Japan where she teaches feminist peace education/research. She is an active member o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and served as International President (2015-2018.) She participated in the Northeast Asian Women's Peace Conference held in Washington DC in 2009. She was among the 30 women of Women Cross DMZ in 2015, and is on the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 **앤 라이트 Ann Wright**

앤 라이트는 미 육군에서 29년간 복무하였고 육군 대령으로 퇴역하였다. 또한 미국 외교관으로서 니카라과, 그레나다,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시에라리온, 마이크로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몽골리아에서 근무했다. 그녀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며 미국 정부에서 사임하였다. 2015년 위민크로스디엠지 참가자로서 북한과 남한을 방문했고 여러차례 한국을 찾았다. "Dissent: Voices of Conscience (부동의: 양심의 목소리들)"의 공동 저자다.

Ann Wright spent 29 years in the US Army and retired as a Colonel. She was also a US diplomat in Nicaragua, Grenada, Somalia, Uzbekistan, Kyrgyzstan, Sierra Leone, Micronesia, Afghanistan and Mongolia. She resigned from the US government in 2003 in opposition to the US war on Iraq. She was on the Women Cross DMZ group that went to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2015 and has returned to South Korea many times. She is the co-author of "Dissent: Voices of Conscience."

## **왕 다닝 Dr. Danning Wang**

왕 다닝 박사는 북경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이후 뉴욕 시티 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국 최고의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차하르 연구소의 연구원이며, 중국 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중국 여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는 홍콩중문대학교와 뉴욕시 지역에 2개의 미국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일대일로 여성 문화교류재단의 설립자이자 대표이다.

Dr. Danning Wang graduated from Peking University with a bachelor degree in sociology and later she received her doctoral degree in anthropology from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She is currently a research fellow at Charhar Institute, the top think tank for China's foreign affairs. Dr. Wang is now teaching at China Women's University. Before she joined CWU, she had taught in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and two American universities in the New York City area. She is also the founder and co-chair of the Belt and Road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for Women.



Online  
Registration

# 2021 International Seminar on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

**Date** 25 November 2021, 14:00 - 17:40  
(Korea Standard Time, KST)

Online event. Registration <https://bit.ly/3GkdPTj>  
Simultaneous interpretation between English and Korean provided

## | Co-Host Organizations |

Korea Church Women United | Korea Women's Alliance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National YWCA of Korea | Women's Committee of the Korea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Women's Committe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Women's Division of the South Korean Committee for Implementation of June 15 Joint Declaration  
Women's Forum for Peace and Diplomacy | Women Making Peace

## | Co-sponsors |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Women Cross DMZ (WCDMZ) |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Tongilnews | The Women's News